



# 울릉신문



www.ulleungnews.com

대표전화 : 1899-7489

독도를 품고 있는 국민의 신문

복 0002호 2022년 11월25일~12월10일

## 울릉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 성명 발표

### 김병욱 국회의원·울릉군·군의회·남진복 도의원 공동 성명 발표 독도 영토 안보, 국민생명 지키기...정부 차원 강력한 대응 촉구

울릉군(군수 남한권)은 지난 3일 오전 군청 광장에서 김병욱 국회의원(포항남·울릉), 공경식 울릉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남진복 경북도의원, 군청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1만여 울릉군민의 생명과 영토안보를 지키는데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상 NLL 이남을 넘어선 울릉도 방향으로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울릉군은 1만여 군

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한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는 77년 간 분단 역사 이래 초유의 사태로 특히 미사일의 방향이 울릉도와 독도를 향했다는 것에 군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북한의 명백한 영토 침략 행위에 대해 정부의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동해상은 울릉도와 독도를 찾는 연간 50만 명의 관광객이 이용하는 여객선(6개 노선 8척)이 매일 운항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만큼 정부에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태를 잊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울릉도·독도 정기 운항 여객선, 어업인,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일상의 보장 △마울단위별 주민대피 시설 건립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영공수호를 위한 울릉공항 활주로 실질적 추가 연장 △등급료 재해 상황 발생시, 군민과 관광객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시스템 마련

등 울릉도·독도의 영토안보와 국민생명을 지키도록 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책 촉구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8시부터 남한권 군수는 김병욱 국회의원과 함께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 상황보고회와 관내 학교 시설 현황을 확인했다.

또한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따른 대응책 마련 및 주민 대피 매뉴얼을 점검함과 동시에 관내 학교시설의 신·증축 시 지하 대피시설 반영, 복합형 주민 대피시설 건립을 비롯한, 일주도로3



건설공사와 터널 내 대형 방커형 대피 시설 확보 등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김경학 기자

## 도의회 독도수호특위, 업무보고 회의로 첫 의정활동 시작

### "집행부에 책임감과 사명감 갖고 대응해줄 것" 당부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허복)는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첫날인 지난 7일 제2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특위 구성 이후 독도에 대한 조직 구성과 주요 업무과업을 위한 첫번째 의정활동으로 독도수호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해양수산국(독도해양정책

과)과 (재)독도재단의 그 동안의 추진 성과와 향후계획을 보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김희수 위원(포항)은 독도에 대한 영

유권 강화를 위해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는 등 두드러진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학교 내 수학여행지로 독도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검토해볼 것과 독도 관련 유사·중복성 있는 사업은 통합 추진으로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중앙부처와의 독도 관련 회의에 경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과 명예주민증 발급체계를 입도객 전원에게 현장에서 바로 발급하고 홍보하는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연구시 위원(포항)은 공공기관에서 독도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일반 도민들도 실시간 독도영상을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해 줄 것과 독도 수호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 방안을 제안했다.

이철시 위원(경산)은 독도박물관과 안영복 기념관의 역할과 기록물 보존 자료 실태에 대해 물으며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과 e-독도수호원장과 독도 민간단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진복 위원(울릉)은 독도재단의 폭넓은 역할에 대한 분담을 당부하고 독도안전지원센터로 전환 추진하는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독도방파제 구축사업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용진 부위원장(김천)은 독도 관련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에 비해 학술세미나가 다소 적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과 확대를 당부했다.

허복 위원장(구미)은 독도 관련 사업비가 전년에 비해 감소된 부분을 지적하고 향후 적극적인 예산 반영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독도수호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집행부 및 독도재단에게 시대적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앞으로 독도수호를 위한 행보를 집행부와 함께 공동대응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해녀문화계승 심포지엄' 개최

울릉군(군수 남한권)은 '제주 해녀의 울릉도 독도 출항과 해녀문화계승 심포지엄'을 경북도, 울릉군, 독도재단 후원으로 최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제주 해녀의 울릉도 독도 출항에 대한 재조명을 통하여 독도영토주권 강화에 기여한 제주 출항 해녀의 활동 의미를 돌아보고 울릉도 거주 제주 출신 해녀의 현재적 진단과 함께 해녀문화계승을 통한 울릉도-독도 해양문화발전과 제주-울릉도 해양문화 교류 발전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울릉도·독도해양수산연구회 주관으로 울릉도에 위치한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에서 개최됐다.

현장에는 관계 전문가와 울릉군 및 강병삼 제주시장 등 관계 공무원, 울릉도 거주 해녀, 울릉고등학교와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제주 해녀의 울릉도 독도출항과 제주해녀문화의 가치와 계승이라는 주제를 갖고 관련기관 및 각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울릉도에 거주하는 제주 출신 해녀들이 참석하여 해녀들의 울릉도 독도 활동에 대한 생생한 증언과 독도감지로 널리 알려진 독도바다사자를 울릉도 주민과 함께 키운 증언을 공개했다.

제주 해녀의 독도 물질은 1930년대 무렵부터 시작됐으며 해방이후에

는 독도의용수비대, 독도 주민 등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독도를 개척한 주인공들이었다.

또한 일본에 의한 남획에 의해 멸종된 독도바다사자의 마지막 증언자들이다. 현재 울릉도에는 제주 출신 해녀 9명이 살고 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행사에 참석하여 울릉도 거주 제주 출신 해녀들을 격려했고 심포지엄에 앞서 제주 출신 해녀들의 울릉도 독도 출항 역사를 담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1966년 세워진 '울릉도 출어부인 기념비'의 복제본 제막식이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에서도 열려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김윤배 대장은 "제주 출항해녀는 이제는 독도에서 자취를 감춘 독도바다사자의 마지막 증언자이기도 하다.

독도의용수비대, 독도 주민과 더불어 독도의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지킨 제주 출항 해녀의 활동 이야기를 토대로 한 제주와 울릉도 독도를 잇는 다양한 해양교육 문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릉군에서는 지난 8월 경상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해양인문 교류와 섬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제주 도지사를 비롯한 제주해녀 초청 울릉도·독도 탐방행사, 제주 해녀축제에 제주출신 울릉도 해녀 참석, 제주시와 울릉군의 공동발전 및 해양산업 교류업무협약 체결 등 도 및 시·군간 활발한 교류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



PRAY FOR ITAEWON

#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갑작스런 비보에 슬픈 마음을 금할 길 없는 유가족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하오며,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울릉신문 애독자일동**



# 대구경실련, 울릉군의회 의정비 인상 경북도에 감사요청

## 내년도 의원들 월정수당 2022년에 비해 50% 인상 군의회 회의록도 공개치 않아... 최근 공개가 2012년

대구경실련은 최근 울릉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에 대해 경북도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했다.

최근 대구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울릉군 의정비심의회의는 사기진작 등을 이유로 2023년 울릉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2022년에 비해 50% 인상된 2821만원(월 235만원)으로 결정하고 오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지방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해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년 1320만원(월 110만원)으로 결정한 의정활동비를 더하면 울릉군의회 의원의 2023년 의정비는 4141만원이 된다"면서 "이는 경북도 지역 기초의회 중에는 포항시 다음으로 많은 금액으로 울릉군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의정비는 1인당 3만2161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회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위의 항목에 대한 세부 기준, 세부 기준의 반영 여부와 비중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정비심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더라도 주민 수 등을 반드시 고려해 월정수당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울릉군이 공개한 2022년 제1차, 제2차 회의록에 따르면 울릉군 의정비심의회의는 주민 수 등에 대한 검토와 고려를 하지 않고 사기진작 등을 이유로 월정수당 50% 인상을 결정하고 여론조사를 거쳐 이대로 결정했다"고 꼬집

었다. 대구경실련측은 "울릉군이 공개한 2023년~2028년 의정비 지급 결정 내역은 법령에 따라 구성, 운영된 의정비심의회의가 주민여론조사를 거쳐 결정하고 울릉군은 의정비심의회의가 결정해서 통보한 내용을 법령에 따라 그대로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 부당성 여부와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은 간단한 일 아니다"며 "울릉군 전체 인구 9013명 중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이 응답한 주민여론조사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위법, 부당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으나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울릉군 의정비심의회의 의정비 결정은 위법, 부당성 여부와 책임을 반드시 밝혀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해 대구경실련은 지난 16일



경북도 감사관실에 울릉군 의정비심의회의의 월정수당 결정과 심의회 운영, 의결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한편 대구경실련은 울릉군 의회의 의정비 인상 부분만 꼬집은 것이 아니라 의회 회의록 비공개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지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의

결한 사항만 비공개할 수 있을 뿐"이라며 "지방의회 회의록 공개는 법령 이전에 상식에 속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경북도 지역 기초의회 중 회의록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의회가 바로 울릉군 의회"라고 밝혔다.

또 "울릉군의회 홈페이지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도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가장 최근의 의정소식지는 지난 2012년 11월27일 발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 대비 맞춤형 예산심사 기법 등 교육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23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예정특위 위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산 심사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 9월에 실시한 예정특위 역량강화 교육에 이은 두 번째 교육으로 제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들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의 2023년

도 본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안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예산분야 전문가인 한국지방자치연구소 우지영 소장을 초빙하여 '예산 심의 기법과 실제'란 주제로 예산 편성기준, 재정현안,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비교, 중점 체크사항 등 예산 심

사에 꼭 필요한 내용과 심사 방법 등을 교육했다.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결특위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위원들의 전문성과 역량강화의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우리 예정위원들은 지역발전과 도민의 뜻에 따라 예산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최종 컨트를 타워가 되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실력 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경학 기자



# 손희권 의원, 교육공무원 성비불균형 심각, 대책 필요

## 신규 중등교사 여성비율 46.6%(2018)→70.2%(2022) 상승 최근 5년간 여성비율 유치원교사 97.8%, 영양교사 99.4%



경북도의회 손희권(포항) 의원은 "경북 도내에서 최근 5년간 신규임용 교육공무원의 성비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희권 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현재 경북 도내에 학교별 여성교사 비율이 초등학교 64.9%, 중학교 77.9%, 고등학교 61%로 나타났다. 중학교가 학교별 성비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중학교의 신규임용 성비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2.6%에서 2020년 61.1%, 2022년에는 70.2%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추이를 살피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별 인사이동에 성비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며, 23개 시군 중에서 성비불균형이 평균을 상회하여 심각한 지역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성주와 칠곡의 중학교 교사는 각각 85.5%, 82.6%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경상북도 신규임용 교육공무원 누적 성비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이 압도적인 교사직 군이 50%가 넘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직군별로는 영양교사(99.4%), 보건교사(99%), 유치원교사(97.8%), 사서교사(88.3%) 등에서는 여성이 대부분이었다.

이 직군에서 5년간 임용된 남성교사 수는 영양교사 1명, 보건교사

2명, 유치원교사 6명, 사서교사 11명 등에 불과했다.

여성 교사가 학생에게 더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교사의 임무나 역할 수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많은 것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생활지도 등에 어려움과 학생들의 성 정체성 확립 및 성장 발달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손희권 의원은 "경북의 미래를 책임지는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공무원은 매우 중요한 분절이다"며 "교육공무원의 여성 비율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가법적이지 않은 만큼 교육공무원의 성비불균형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휘 기자

# 이형식 의원, 도청신도시 정주여건 및 접근성 개선

## 예천공항 재개항과 도내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물어 도청신도시 중학교 과밀학급 해소로 학습권 보장돼야



경상북도의회 이형식 의원(예천)은 22일 열린 제33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경북도청 신도시 정주여건 및 접근성 개선 ▶경북도청 신도시 송평천 오염방지 ▶도내 농공단지 활성화 ▶경북도청 신도시 내 중학교 신설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경북도청 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주여건과 접근성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의 지연으로 인구 유입이 정체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상주인구 증가와 신도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리고 경북도가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임을 지적하고 상급종합병원 유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주민 편익을 고려한 예천공항 재개항은 도청신도시와 경북 북부권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예천공항 민항기 운항 재개를 촉구했다.

이어 경북도청 신도시 내 송평천의 수질오염 위험을 지적하고 오염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송평천이 신도시의 비점오염원 배출구와 농경지대를 통과하며 생활하수 및 농약·비료 등으로부터 상수 수질오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인근 생태하천에 비해 BOD, 총대장균군 등 대다수 항목에서 수질이 떨어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우수량 증대와 오염 관리 대책을 강력히 주문했다.

다음으로 도내 농공단지의 개선에 산이 해마다 줄어들어 노후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경쟁력 제고와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주민과의 상생 환경 조성을 주장했다. 총 69곳의 농공단지 중 약 75%인 52곳의 농공단지 20년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농공단지 개선을 위한 예산은 매년 줄고 있어 단지 내 인프라 부족 등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도내 농공단지의 기능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것과 입주기업 지원, 농촌형 스마트

생활인프라 보급단지 조성, 정주환경 개선 등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주민의 상생 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도청신도시 내 중학교 과밀학급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신설 대체 이전'을 통한 조기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신도시 내 유일한 풍천중학교의 학생 수가 2016년 4학급 72명에서 2022년 32학급 760명으로 6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하여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 질 저하를 지적하며, 학생들이 누려야 할 학습권의 보장을 위해 조속한 중학교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중학교 조기 신설 추진 어려움에 대한 차선책으로 기존 풍천초와 풍서초가 풍천풍서초로 통합 이전 사례와 풍천중의 이전 교고, 감천교의 이전을 통한 경북일고 교고 사례를 언급하며 '신설 대체 이전 방안'을 제시하고 도교육청에서 모든 역량을 쏟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식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청 신도시는 개발로 인해 떠나게 된 실형민의 상실감을 지역의 발전으로 달래며 경북의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광역행정 중심도시로서 이주민의 꿈을 실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철우 지사 시정연설 통해 '2023년 도정방향 제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도민에 대한 책임과 행복, 위대한 도전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 12조821억원을 편성했다며 이를 경제 활성화와 도민 안전·행복에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22일 제336회 경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예산안 내용과 도정 방향을 밝히고서도 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경북도가 앞서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11조 2527억원)보다 7.4% 증가한 12조821억원 규모다. 일반회계 10조5111억원, 특별회계 1조 5710억원 등이다.

이 지사는 "2023년 경북도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해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부족한 규모이지만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경북의 대전환을 이끌어 가는데 재정의 역할이 크다"며 "안전정책 선진화와 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청년 인구 유입, 최첨단 전략산업 육성, 디지털 경제로 전환, 문화관광산업으로 먹고 사

는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특히 재난과 재해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자연재해위험지구와 풍수해생활권에 재해예방시설을 집중 구축하고 대형산불의 조기진화를 위해 오는 2026년 도입을 목표로 8000리터 이상 담수가 가능한 '초대형 산불진화헬기' 구입 계획도 밝혔다.

또한 복구계획이 확정된 태풍 힌남노의 경우 22년 정리추경에 집중 편성해 조기에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출산·보육 어려움을 덜고자 공공산후조리원을 짓고 만 0세와 1세 아이의 부모 1만6330명에게 월 70만원과 3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부모급여사업'을 신설하였고 '아픈아이 긴급돌봄센터'와 '24시 시군제 보육시설사업'을 포함한 완전돌봄 시범사업도 신설하였다고 설명했다.

어르신·장애인을 위해서는 '경로당 안전건강 증진사업'을 신설하고 방문 목욕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도 확대 편성한다. 고졸 청년을 채용하는 신산업분야 중소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농업 계고 졸업생에게 창업비용을 지원한다.

이 밖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와 시설 현대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등으로 서민경제에 힘을 보탠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지방시대 선두주자로 차세대 산업에 '위대한 도전'을 할 예산을 편성했다"며 "다른 기회를 얻으려면 다르게 보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타버스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관련 물류센터 ▶자동차튜닝

지원센터 등 미래차 부품기술개발 지원 ▶백신연구개발 지원 ▶반도체·배터리 소재부품 고도화 ▶고위험 제조 현장에 로봇공정 도입 지원 ▶제조업 '구축' 등이 대표 정책이다.

그는 농림어업과 해양수산 분야에서 ▶디지털혁신농업타운 집중 투자 ▶임대형스마트팜 ▶축산분야 ICT지원사업 지속 투자 ▶청장년층의 정착 지원 ▶어촌 뉴딜 300등 정책 ▶스마트양식인프라 구축으로 청년이 주도하는 산업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화예술 그리고 관광분야에서는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사업 ▶한글, 한복, 한옥 등 한류문화 진흥 ▶경북의 스토리산업 활성화 ▶영천시립박물관 건립 ▶도청신도시 도립미술관 건립 ▶김천·성주 체육센터 건립 등을 지원해 수도권과 격차를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다가올 '지방시대'는 선진국들이 그러했듯이 지역이 자기만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면서 국가발전 이끌고 국민들은 어디에 살든 부를 축적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는 세상"이라며 "민선8기 경북도정은 경북연구원을 설립하고 전문가들을 모셔와 더 큰 성공의 길을 개척해 나가며 조직개편을 통해 '지방시대정책'을 신설해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공학관련 조직도 확대개편하여 경북의 미래 성장판을 확실히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기자

## 22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시정연설 안전과 복지에 대한 '무한책임' 최우선 순위 당초 보다 증액한 12조821억원 예산안 설명

## 남한권 군수, 북한의 공습대비 현안건의 국회방문

### 국회(정기회) 일정에 맞춘 협력과 예산확보 행보



남한권 군수가 제400회 국회(정기회)가 개원됨에 따라 지난 10일 국회를 방문해 북한의 도발에 따른 울릉도 공습발령 대비에 나타난 문제점과 관련현안을 건의하고 내년도 국회차원에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나섰다.

지역구 의원인 김병욱 의원을 만나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울릉(시동)항 3단계 설치',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한 지하 대피시설 및 주차장 건립', '하수처리장 국비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2023년도 국회예산 반영

을 요청했다.

남 군수는 국토교통부 항공실장과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건에 대한 상황을 설명했고 해군본부 정작참모부장(해군 소장)을 만나 울릉 118전대에 군의관이 배치될 수 있도록 편제변경을 건의 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또한 산림청장을 만나 산림청소관 국유림으로 관리되고 있는 죽도의 울릉군 관리에 대해서도 건의하고 추진방안과 상호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죽도는 관광자원 활용이 높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지난 1987년부터 관광지로 지정해 개발하고 있으나 소유권이 울릉군에

없어 개발과 활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남 군수는 "지난달 28일 대통령 참석 국정 설명회에서 건의한 울릉도 독도지원 특별법,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과 울릉항 3단계건설의 필요성이 이번 북한의 도발로 확인되는 계기가 됐다"면서 "118전대의 군의관 배치는 열악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보완하게 되며 죽도의 소유권이관은 산림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학 기자

울릉의 맛

# 한식당 '미당'

오전 6시30분부터 영업

ULLEUNG FOOD IN MIDANG KOREAN RESTAURANT

New

특별한 한정식 (특·별마사지 예약 가능) 120석 원비

New

단체행사 가족행사 대 소모임 가능 식탁예약 가능

예약문의 054) 791-3304

울릉도 사들한 특산물채용유동타운 2층

"최상급 조망, 책과 빵이 있는 카페"

## CAFE 울릉미당

울릉미당은 모든 빵을 직접 만들어 판매합니다.(전국 택배 가능)

New

홍감자빵 울릉도 홍감자빵

New

울릉도 소금빵 해망심층 소금 사용

New

울릉도 홍감자빵 100% 울릉도산 홍감자

홍감자빵

홍감자빵

울모닝

오일어 떡볶이 샌드위치

냉동 성지를 사용하지 않으며 100% 천연버터를 사용하여 반죽, 생형, 발효, 굽기 등 모든 과정을 수제료하는 베이커리샵입니다.

054-791-3304

울릉도 울릉한 특산물채용유동타운 4층



# “신비의 섬 울릉도” 가보면, 가봐도, 가볼수록 아름다운 섬



## 말로 형용할 수 없다... “아름다운 해님이”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울릉도 유일의 평야 “나리분지의 가을”



▲울릉도 북면 일대에서 만난 아름다운 해님이. 사진=김경학 기자

### ■울릉도 아름다운 해넘이의 시작... 남서 일몰 전망대

울릉군 서면 남양 마을에는 독도 해돋이 일출 전망대, 내수전 전망대와 더불어 울릉도에서 해돋이와 해넘이를 볼 수 있는 곳이다.

남서 일몰 전망대는 남서리의 투구봉과 사자바위뒤 북쪽 능선 해발 150m 고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전망대 정면에는 남근바위가 우뚝 솟아 있으며, 건너편 산자락에는 색시바위와

개척 때 사람들이 이곳에 와 보고 석산에 굴이 있다고 해서 굴바위라 부르게 되었고, 굴안이라고도 하던 것이 오늘에는 구암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울릉도에 존재했던 고대국가 우산국에 대한 기록과 흔적을 담은 곳으로 신라장군 이사부로 시작되는 역사기록과 발굴조사를 통한 유적과 유물에 대한 정보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우산국박물관 내 위치한 궤도시설 노레일을 타고 남서일몰전망대에 올라 말로는 형용하기 어려운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할

수 있다.

울릉군 서면 남양리 일원은 남서리 고분군과 국수바위(비파산), 투구봉 등 울릉도의 역사와 밀접한 명소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중 국수바위(비파산)는 국가지질공원의 지질명소로 등재되어 있다.

### ■울신비로운 색의 향연... “태하 황토굴” & “파도공원”

울릉군 서면 태하리 마을은 1882년 개척령이 반포되자 최초로 이주해 온 주민들의 분거지로 1902년까지 울릉도의 행정 중심지였고 울릉도에서는 본래의 토속적 모습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태하 황토굴은 주황색황토와 검은바위가 가이한 시선을 끈다.

황토굴은 화산재 퇴적물이 굳어서 형성된 응회암이 파도에 의해 차별침식을 받아 생성된 해식동굴로 이곳의 황토는 일반적인 황토 성분이 아니라 붉은색의 응회암에 산화철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울릉도 순찰 관리에 증거품으로 향나무와 이곳의 황토를 상납받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해안선을 돌면 용암이 파도와 부딪히면서 만들어낸 파도 모양의 바위들이 장관을 이룬다.

이곳을 일명 파도공원 이라고 하며, 지역 최고의 낚시 포인트로 손꼽히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국가지질공원 지질명소인

태하마을의 관광명소 황토굴과 아름다운 해안선을 감상할 수 있는 연결 관문인 황토구미테마 교량과 대풍감, 태하항목 관광 모노레일과 울릉도 개척시대 역사길과 성하신당의 전설이 그려져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반드시 찾아오는 곳이다.

### ■울릉도의 관문 도동항

울릉도의 관문인 도동항은 포항과 묵호 등지에서 방문하는 관광객, 방문객을 가장 먼저 반기는 곳이며, 도동은 주민들이 많이 살며 변화한 곳이라는 뜻의 도방정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주요 관광지와 학교 등이 있다.

도동 일원의 주요 명소는 도동항, 울릉도 향나무, 울릉역사문화체험센터,약수공원, 독도박물관, 향토사료관, 독도전망대 케이블카 등이 있다.

특히 독도박물관은 지난 2018년 독도 영유권 강화 및 다양한 문화체험 영위를 위해 박물관 별관 좌측에 영상관을 건립했다.

영상관은 편광안경을 이용한 3D와 모션좌석을 활용한 4D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치이 야기 애니메이션을 무료 상영하고 있어 자녀를 동반한 관광객들은 꼭 한번 방문해 볼 가치가 있는 장소다.

또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망향봉에서 108계단을 올라 전망대에 오르면 도동시가지 전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고, 한적한 산길을 따라 독도 전망대에 이르면 청명한 가을날 육안으로 우리나라 영토 독도를 볼 수

있다.

### ■성인봉에서 바라본 유일의 평야 “나리분지...”

울릉도 성인봉 원시림은 국가지질공원 지질명소로 등재되어 있다.

나리분지가 형성되고, 울릉도의 마지막 화산폭발로 인해 부석이 울릉도 전역을 덮었는데 이때 발생된 부석이 호수로 운반되어 쌓이면서 단단한 화산암으로만 구성되어 있던 울릉도에도 생물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게 되었다.

나리분지는 해발 약 500m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서 직경 약 1.5km, 남북 직경 약 2km의 울릉도 내에 유일한 평지에 속한다.

화산활동이 끝나가는 시기에 마그마가 수축하면서 화산의 중앙부가 원형으로 함몰되었는데 이때 나리 갈매기가 형성되었다.

나리분지는 오랜 시간 지질 활동으로 모인 부석들이 풍화되어 강수량이 많은 우기에도 물이 고이지 않고 지하수로 스며들어 이 지하수가 흘러 용출되는 곳이 용출수이다.

옛날 선조들의 삶의 터전이던 이곳에서 국가 지정 중요민속자료 제256호인 투막집과 너와집을 통해 선조들의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김경학 기자



▲아름다운 해넘이가 시작되는 남서 명품 일몰 전망대에서 조망.



▲나리분지



### 한국임업후계자협, '제31회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 개최

“선진국형 산림경영으로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나가자”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회장 최무열)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경기 여주시 신록사관광단지일원에서 '제31회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선진국형 산림경영으로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나가자'는 주제로 전국 임업후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임업의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유대를

다지기 위해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열린 개최식에는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남성현 산림청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등 임업계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해 행사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전국 임업인과 임업에 관심 있는 여주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임업, 임산물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한 탄소중립시대에 산림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임업정책포럼과 학술세미나를 열어 대한민국 산림, 임업 정책비전을 제시했다.(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지난 1996년에 설립해 현재 전국에 40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산림, 임업에 관한 정책, 기술보급과 회원 상호간 화합과 권익보호에 나서고 있다.

최무열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은 “한국은 사유림 면적비율이 전체산림의 67%이며 사유림 관리주체가 임업인이므로 국가에선 임업인을 위한 정책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임업,산림공익직불제 확대, 임도확대, 산림순환경영 정착, 임업인 세제혜택, 국산목재자금 융자, 고성능 임업기계화시스템 구축, 여성·청년임업인 육성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이제 산림보호에서 지속가능한 이용가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만큼, 우리 임업후계자들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 가치가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선진국형 산림경영, 관리를 통해 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말했다.

/경대휘 기자

### 경북도, '제12회 산림대상' 수여

단체 한국산림과학고, 개인 한창훈씨 수상



경북도는 지난 24일, 도청사 행정부지사실에서 제12회 경북 산림대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산림대상은 단체부문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교장 황병숙), 개인부문 한창훈(52)씨가 수상했다.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는 춘양상업고에서 2011년 국내 유일의 산림특성화고로 전환해 380명의 산림분야 인재를 배출하고 공공기관·산업체 등에 170명이 취업해 미래임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개인부문 한창훈(52세)씨는 지난 2004년 임업후계자와 2019년 독립가로 선정돼 248ha 산림을 가꾸고, 연간 14만본 용기묘 생산 등 모범적 산림경영과 전문지식 보급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북산림대상은 임업 경쟁력 강화에 공헌한 우수 임업인 및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시장·군수의 후보자 추천과 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는 산림분야 상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최 일선에서 임업인 양성고 산림산업 육성 등 경쟁력 강화에 공헌해 왔다”며 “앞으로도 임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대휘 기자

### 부여군, 임업인 단체 '한마음대회' 개최

충남 부여군은 지난 17일, 부여군 유스호텔에서 '부여군 임업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밤재배자협회 부여지회 주관으로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부여지회 등 지역 10개 임업 관련 단체 500여 명이 참여해 성료됐다. 대회는 '제17회 부여 굿뜨래 알밤축제'와 함께 지역 임업인의 정보교류 및 임산업 발전에 대한 상호 소통을 통해 산

림소득 증대와 임업인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했다. 행사는 부여풍물단 공연을 시작으로 임업 재배기술 유공자 표창, 임업 단체별 주제발표, 드론을 이용한 산림 병해충 방제 설명, 단체별 노래자랑, 남북통일 코리아 악단 공연, 경품 추첨 등으로 화합을 다졌다. 이봉배 알밤축제추진위원장은 “올해에는 집중호우와 태풍피해로 임산물 재

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업인들이 잘 극복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 직불제에 대한 임업직불금 지급, 부여군농업 회의소를 통한 임업인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현장 행정으로 임업인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대휘 기자



경상북도 경북투어패스

72:00

경상북도 여행은 경북투어패스

통합권 하나로 준비 끝!

- 13,900원 경북 전지역 통합권
- 하나의 바코드로 72시간동안 약 80여개의 관광지과 카페를 자유롭게 즐기자

지금 바로 검색하세요!

NAVER 경북투어패스

### 경북도, 2022년 산불진화 합동 시범훈련 실시

실전 훈련으로 대형산불 대응역량 키워...



경북도는 지난 23일, 오후 안동 길안 천지생태공원 일원에서 대형 산불 발생을 가정한 '산불진화 합동 시범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대형 산불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신속한 진화를 위해 인근 시군과 산불관련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했다. 훈련은 대형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또한 현장통합지휘본부 운영, 진화지휘권 인수인계, 산불진화헬기 동원과 투입, 부상자 구조·구급, 기해자 검거, 잔불 정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조치와 대응 체계를 실전과 동일하게 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지난 봄철 발생한 6건의 대형 산불 등 그간 진화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산불원장 통합지휘본부와 실시간 변화하는 산불상황에 대응하는 상황판단과 현장지휘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최영숙 경북도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합동 시범훈련을 통해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과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며 “산불에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 진화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이다”라고 말했다.

경대휘 기자

### 보령시, '제12회 임업인 한마음대회' 개최

충남 보령시는 지난 16일 보령시청소년수련관에서 12회 임업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보령시협의회(회장 이발원) 주최로 '산림의 가치, 앞으로 100년을 꿈꾸다'를 주제로 지역 임업후계자, 산림조합 등 13개 단체, 4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녹색 성장의 중심에 있는 지역 임업인의 산림발전에 대한 정보교류와 산림의 미래가치, 소중함을 알리고 임업인의 지역 임업인의 힘과 열정,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행사를 통해 임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임업인 명랑운동회,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친목 행사를 진행했다. 한편 부대행사로 지역 특산품 표고버섯, 양송이버섯으로 조리한 음식 체험부스, 왕



밤햇게를 이용한 간식 체험부스, 스테비아 아레몬밤을 이용한 다도 체험부스 운영, 목공품 및 도자기 전시, 표고자목 종균 접종품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올해 12회째를 맞

은 임업인 한마음대회가 임업인들의 화합을 다지고 임업이 6차 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임업인의 권익증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일구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산림청, '제22회 산림 정보통신기술 학술대회' 개최

산림 분야의 최신 ICT 동향, 우수사례·아이디어 공유  
"산림관리 디지털 전환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 실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탄소중립 추진과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산림 분야의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동향,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제22회 산림 정보통신기술(ICT) 학술대회'를 충남 예산의 스피러스 리솜 리조트에서 지난 24일~25일까지 2일간 개최했다.

한 산림 르네상스 시대 실현"을 주제로 산림 분야 정보 통신 기술(ICT) 활용사례와 아이디어 경진 대회를 개최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과 디지털 산림구현에 대한 기초연설과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대상에는 '임도 품질 고도화 및 미리 보는 산 시대 예방'을 발표한 동부지방산림청팀이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았으며, 학생부 문 최

공공부문 최우수상은 '멸종위기 침엽수종 가상모형(디지털트윈) 구축을 위한 산림 전용 라이더(LiDAR) 시스템 개발 및 3차원 정밀 데이터베이스(DB) 체계(플랫폼) 구축 사례'를 발표한 강원대학교팀이 선정돼 각각 산림청장상을 받았다.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위원회 김미량 위원장은 기초연설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림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산림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산림 분야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사례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산림 정보통신기술(ICT)을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라며 "숲을 통해서 경제가 튼튼해지고, 환경이 건전해지며 삶이 풍요로워지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대휘 기자

### 경북도, '산림박람회 개최'



경북도는 지난달 13일부터 15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2022 경상북도 산림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숲에서 길을 찾다. 숲으로 가자'를 주제로 경북도에서 추진해 온 산림 정책 전반을 대내외로 알리고 미래 산림분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했다.

행사는 경북지역 23개 시·군과 100여개 산림 관련 기업 및 기관·단체들이 참여해 지역의 숲과 관련한 청정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산림정책 주제관, 23개 시군 산림홍보관, 산림관련 컨설팅, 산림정책 심포지엄, 우수 산림 PT쇼, 우수임산물 라이브커머스 및 각종 숲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경북의 메타숲길' 미디어관은 실감미디어를 활용해 시공간을 초월한 경북의 명품 숲길을 현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었다.

주요 부대시설 '경북의 숲에는 참관객들이 편히 머물고 즐길 수 있도록 경북의 명품

숲 사진 갤러리, 숲속카페와 숲속놀이터를 함께 배치했다.

또 '경북의 숲' 한쪽에는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의 초대형 백두랑이 조형물을 전시해 흥미로운 볼거리와 명품 포토존을 운영했다.

또한 경북도내 임산물 요리를 한자리에 맛볼 수 있는 '임산물 요리 품평회'가 열렸으며 부산대학교 김은주 교수 특강과 유아숲 교육 우수사례발표를 담은 '유아숲 교육세미나'를 진행했다.

특히 기업광장에는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산림관련 기업관들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임산물 홍보무료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박람회는 울림 유례없는 초대형 산불로 인해 위축된 도민들에게 산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산림 일자리를 확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과학원-괴산군, 산림 공동협력 사업 추진



산림과학원은 충북 괴산군과 손잡고 산림 분야에 대해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송인현)과 미이용 바이오에너지, 국산 목재 활용 등 산림 분야의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기술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산림분야 협력사업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 △국가연구개발사업 상호협력 및 공동연구 추진 △기술 교류 프로그램 연계 및 공유 추진 △연구시설 및 장비 공동활용 등이다.


괴산군은 전체면적의 75%가 산림으로 이뤄진 지역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괴산'이라는 목표 아래 괴산 산림정원 조성, 괴산 산림문화공동체 수립, 미래 신성장 푸드테크단지 조성 등 산림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 비즈니스 경영주체 육성 방안, 지역 산림자원 순순환 이용체계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립산림과학원이 도출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괴산군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산림자원을 내실 있는 신산업 동력자원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윤은수 기자



봉화광산 생환 광부가족 산림치유캠프 경북도는 지난 25일 도청에서 봉화광산 생환 광부와 가족을 초청해 오찬을 가지고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간 국립산림치유원과 연계해 산림치유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에는 생환 광부 박정하 작업반장과 그 가족(8명), 보조 작업자 박모씨의 가족(3명)이 참가했다.



취업  
이름

국민취업지원제도


##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한 번에!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문의
<p><b>I 유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li> </ul>	<p><b>I 유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li> </ul>	<p>고용센터 (국번없이) ☎ 1350</p> <p><a href="https://www.kua.go.kr">https://www.kua.go.kr</a></p> <p>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넷</p>
<p><b>II 유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34세 및 특정계층 소득 무관, 재산 무관</li> <li>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li> </ul>	<p><b>II 유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대 195만 4천원 취업활동비용</li> </ul>	

올해는 꼭 취업성공!

**취업이!**





# 2022 서울시 10대 뉴스 선정...온라인 투표 시작

## 올 한해 서울을 '동행·매력 특별시'로 만든 서울시 10대 뉴스 선정

올 한해 우리 곁에 함께 해 든든했던 정책, 그리고 서울을 가장 매력적으로 만든 서울시 정책은 어떤 것이 있었나.

# "서울시가 나의 건강을 챙겨준다는 느낌과 나도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좋았습니다." (손목닥터 9088)

# "서울린으로 공부하거나 학원 안가도 진도를 따라가는데 어렵지 않은거 같아요. 제 친구들도 다 △△△△를 튼튼데 저도 들을 수 있으니 남들과 동등한 선에서 공부하는 기분이 들어요." (서울린)

# "안심소득 덕분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적금이라는 것을 가입했어요. 이제 첫 달일 뿐입니다만 그래도 적금을 가입했다는 자체가 뿌듯합니다. 적어도 공과금이나 이런 것을 밀릴 걱정은 안 해도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서울시는 올해 선보인 정책 중 시민들에게 가

장 사랑받은 서울시 10대 뉴스 '서울 정책 톱10'을 선정하기 위해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12월 25일까지 31일간 서울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서울시 10대 뉴스는 매해 연말 시행하는 시정 이벤트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요 정책들을 다시 한번 선보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해 더욱 완성도 높은 정책을 구현해 나가고자 함에 의미가 있다.

특히 올해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서울을 '약자와 동행' 하는 '상생도시', '매력' 있는 '글로벌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고민을 녹여낸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투표는 서울시정에 관심있는 누구나 네이버 해피빈에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서울 정책 톱10' 온라인 투표는 네이버 해피빈에서 진행되며, 투표는 시민의 선호에 따라 후보

정책 30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 가능하다.

투표 페이지는 대표누리집 배너와 포털사이트 네이버 및 다음에서 '서울'을 검색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온라인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27일 시민이 선정한 '서울 정책 톱10'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올 한해 서울시는 공정과 상생의 가치가 살아있는 매력적인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쳤다"며 "올 한해 선보인 정책들이 시민들의 선택으로 의미있는 결실을 맺고, 더 기대되는 내일의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

#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남자봉 특공대' 발대식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주광덕)에서는 11.24일 오전 10시 센터 4층 강당에서 봉사 현장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남자봉 특공대'를 결성하고 발대식을 마쳤다.

'남자봉특공대'를 결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센터 측 담당자는 "기존에는 봉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다음에 봉사대를 꾸리게 됨으로써 신속성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투입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센터 측은 특공대원들에게 자원봉사 기본교육, 남자봉 특공대의 운영계획, 일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향후 재난재해, 행사지원, 행사 부스운영, 환경정화, 경로당봉사 등 다양한 봉사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55명의 '남자봉 특공대' 대원들은 "남양주시 관내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봉사 현장에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겠다"는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한편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주광덕)는 "남양주시를 위해 앞장서는 특별한 봉사단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 의사를" 밝혔다.

/정대휘 기자

# 고양특례시 '시군종합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고양특례시가 지난 24일 경기도 주관 2022년 시군종합평가에서 8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로써 고양시는 수원·인·성남 등 인구 50만 이상의 10개 도시 중 2위를 달성해 2억 원의 교부금을 거머쥐게 됐다.

지난 8년간 고양특례시가 우수기관 선정으로 받은 교부금은 총 19억 원이 넘는다. 시군종합평가는 도시의 역량을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지표로, 일자리·안전·복지·환경 등과 관련된 100여 개 지표를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의 행정력을 평가한다.

고양시는 경제와 안전을 시정 핵심 정책으로 강조해왔다. 그 결과 이번 평가에서 △일자리 창출 △안전관리 구축 △지역균형 발전 △열린 행정 서비스 등 도시경쟁력 강화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기 북부가 수도권정비법, 점경지역 등 3중 규제로 남부 도시들보다 세수와 예산,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양시가 8년 연속 상위권에 오른 것은 이례적인 성과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8년 연속 우수 시군에 선정된 것은 고양특례시의 공직자들이 혁신과 헌신의 자세로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우선의 소통 행정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좋은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윤은수 기자

# 서울 종로구청 행촌동 빈집 철거하고 12월 휴게 공간 조성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범죄 우려 등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도심 빈집이 주민을 위한 공익성 있는 공간으로 속속 변모하고 있다. 종로구는 방치된 빈집을 철거 및 활용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빈집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종로 전역에 걸쳐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2021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 행촌동과 충신동 일원에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와 텃밭을 각각 조성했다.

올해의 경우 옥인동 빈집철거대지에 마을주차장, 창신동에는 마을주차장·쉼터를 지었고 가장 최근인 이달에는 행촌동 210-47 빈집을 철거함으로써 주민 불안감을 말끔히 해소해 눈길을 끈다.

행촌동 빈집은 화재로 건물 일부 전소됐을 뿐 아니라 소유자 사망으로 수년간 방치돼 온 곳이다. 인근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다 구조 부분이 함몰·붕괴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안전점검 결과가 나왔다.

집안 사정으로 상속이 이뤄지지 않았고 직계비

속에게 지속적인 조치를 요청했지만 이 또한 이행되지 않아 종로구는 2018년 2월에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하에 해당 빈집을 직접 철거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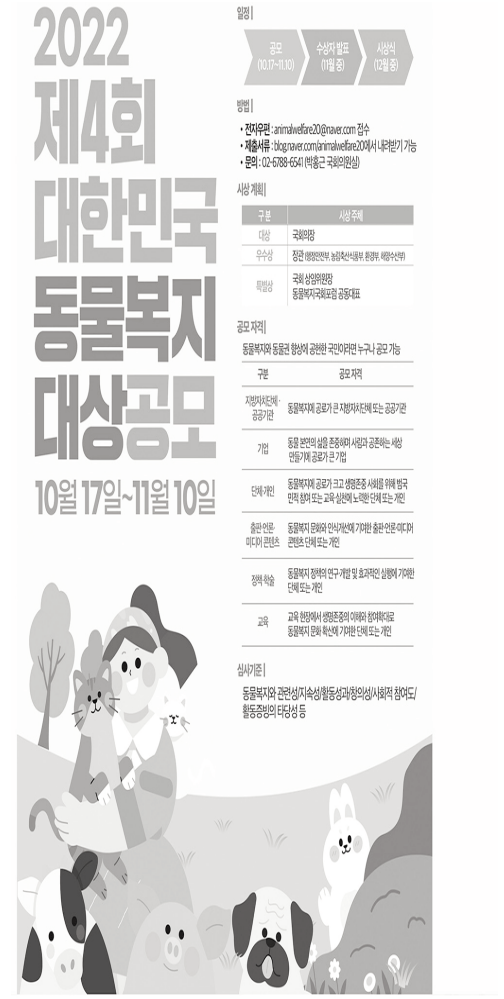
11월 초 철거를 완료했으며, 이달 중 공사에 착수해 12월 내 쉼터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효과 또한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철거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방치된 빈집 문제로 걱정이 많던 차에 철거뿐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들이 속속 들어서니 기쁘다"고 호평했다.

정문현 구정장은 "심각한 도시 문제를 야기하는 오래된 빈집이 모두를 위한 주차장, 쉼터, 텃밭 등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빈집 3곳을 추가로 철거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빈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은수 기자

# 고양특례시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우수상' 수상



고양특례시가 2022년 제4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에서 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고양시는 경기도 최초 직영 동물 보호센터, 전국 최초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지원 사업 등 동물권 향상과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해왔다.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동물복지 국회포럼'에서 주최 및 주관하고,

국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등에서 후원하는 시상으로 올해 4회째를 맞이한다.

고양시는 전문가 심사를 통해 동물 복지 관련성, 지속성, 활동 성과, 창의성, 사회적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은 후 우수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동물복지 기반 조성 및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시민 체감의 반려동물 문화 및 공간 조성 ▲반려동물 특수 시책 도입 및 선도 ▲동물보호센터 지역 도입 및 시스템 고도화 등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과 사업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고양시는 지자체 단위에서 동물 복지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기 전부터 선진적인 동물 복지 정책을 선도해왔다. 2014년부터 경기도 최초의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도입하고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지원 사업'을 운영해왔다.

또한 지역 동물단체, 수의사회와 민·관·경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동물 구조 보호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반려동물 거주 스티커 제작, 안충독지를 활용한 테마공원 조성 등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선보여 왔다.

시 관계자는 "고양특례시에는 30만명에 이르는 반려인이 살고 있다. 반려인인을 포함한 시민과 동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성숙한 반려문화와 동물복지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은 오는 12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정대휘 기자

# 강동구청 국민신청 실명제 운영

강동구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22건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사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의 실명과 추진내용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올해 정책실명제 선정사업은 고덕비즈밸리 조성,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암사역사공원 조기 완공 등 총 22건으로 민선8기 주요 시책과 2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1억 원 이상 연구용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들은 향후 강동구청 홈페이지 '정책실명제'란을 통해 추진내용 등을 공개하며 지속적으로 현황화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강동구는 중점관리 대상사업 외에도 구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신청을 받아 공개하는 '국민신청 실명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청 대상사업은 ▲20억 원 이상의 공사·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 등이며,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제안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또는 강동구청 기획예산과로 우편 접수하거나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손영창 기획예산과장은 "국민신청 실명제로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투명하게 공개해 믿음과 신뢰를 주는 책임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도심항공교통(UAM) 울산이 선도한다”

## 25일~27일, 제5회 미래박람회 도심항공교통 특별관 운영

울산시는 11월25일부터 27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2 울산미래박람회’에 참가해 도심항공교통 특별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울산기업 13개사, 초청기업 18개사 등이 참가해 미래로봇 전시, 도심항공교통, 미래교육, 미래스포츠, 미래교육, 미래문화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울산시는 이번 박람회에 도심항공교통 홍보관을 설치하고 미래교통수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울산 지역 기업들 중심으로 개발한 ‘비행체(드론)’ 과 기관· 연구소가 참여해 지자체 최초로 개발한 울산과학기술원 ‘개인비행체(PAV)’ 를 전시한다.

또한 울주군,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과학기술원과 함께 도심항공교통 협력단지(클러스터) 구축사업 소개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중소도시

첨단도시 조성사업 등 연계사업도 소개할 예정이다.

노동안 울산시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울산시가 도심항공 교통 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첨단 도심교통체계인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울산도 정부와 함께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자동차 도시’ 에서 더 나아가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참여한 2022년 6월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형-도심항공교통 기술개발 실증 성능시험장(테스트베드)에 선정되어 도심항공교통 협력단지(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도심항공교통은 도심 내 짧은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식 수직 이착륙 비행체로 교통 체증을 획기적으로 극복하는 동시에 이동수단(모빌리티) 구도(배려다임)를 전환할 미

래 혁신 산업으로 꼽힌다.

오는 2040년 전 세계 시장 규모가 1,998조 4,492억 원(1조 4,7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2025년까지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계획을 발표하고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 대응 중이다.

울산시도 향후 교통수단이 자율운행이 가능한 자동차와 개인 항공기를 융합한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력 개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지원 도심항공교통 거점 구축과 동시에 관련 기술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도심항공교통 시장을 선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울산의 핵심 성장 동력인 자동차와 비행체(드론) 산업을 기반으로 도심항공교통 사업을 연계 성장시켜 지역 산업 고도화 및 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우선 도심항공교통 집적화 구축을 오



는 2024년부터 본격화하기로 하고 국토부에 내년 국비 확보를 요청하는 등 초기 사업 절차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 6월에는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도심항공교통 집적화구축 사업을 반영하고 국토부와 기본계획 협의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도심항공교통 집적화 구축 예비타당성 용역을 내년 1월에 착수해 연말까지 끝내고, 국토부와 산업부를 대상으로 국비 확보에 나서는 한편, 오는 2024년 3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신청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도심항공교통 집적화 구축을 위한 이들 사업의 사전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울산을 항공기(드론· 도심항공교통 등)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단일 최대 규모의 현대차 공장과 520여 개의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집적된 전국 최대 자동차 산업 도시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도심항공교통(UAM) 진흥원이 들어설 최적의 도시로 조성해 전기차와 수소차로 대표되는 친환경 자동차를 넘어 미래 대표적인 이동수단이 될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홍태용 김해시장, 국비 확보 막바지 총력



울산시는 11월25일부터 27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2 울산 미래박람회’에 참가해 도심항공교통 특별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울산기업 13개사, 초청기업 18개사 등이 참가해 미래로봇 전시, 도심항공교통, 미래교육, 미래스포츠, 미래교육, 미래문화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울산시는 이번 박람회에 도심항공교통 홍보관을 설치하고 미래교통수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울산 지역 기업들 중심으로 개발한 ‘비행체(드론)’ 과 기관· 연구소가 참여해 지자체 최초로 개발한 울산과학기술원 ‘개인비행체(PAV)’ 를 전시한다.

또한 울주군,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과학기술원과 함께 도심항공교통 협력단지(클러스터) 구축사업 소개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중소도시 첨단도시 조성사업 등 연계사업도 소개할 예정이다.

노동안 울산시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울산시가 도심항공 교통 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첨단 도심교통체계인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울산도 정부와 함께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자동차 도시’ 에서 더 나아가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참여한 2022년 6월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형-도심항공교통 기술개발 실증 성능시험장(테스트베드)에 선정되어 도심항공교통 협력단지(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도심항공교통은 도심 내 짧은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식 수직 이착륙 비행체로 교통 체증을 획기적으로 극복하는 동시에 이동수단(모빌리티) 구도(배려다임)를 전환할 미래 혁신 산업으로 꼽힌다.

/윤은수 기자

### 부산시, ‘부산-아세안 이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부산시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부산이스포츠경기장에서 ‘2022 부산-아세안주간’ 기념행사로 ‘부산-아세안 이스포츠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은 2022 부산-아세안주간은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3주년,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고 부산시와 아세안의 지속적인 협력과 연대를 도모하기 위해 11월 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진행되며, 주요 기념행사는 ▲ 아세안 지역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시상식 11.27, 부산이스포츠경기장) ▲ 부산-아세안 이스포츠 페스티벌(11.27, 부산이스포

츠경기장) ▲ 한베 수교 30주년 기념 투게더런(Together Run) 마라톤 대회(11.6, 삼락체육공원 일대) ▲ 한-베 30주년 프렌드십(Friendship) 교류 프로그램(11.25, 부산외국어대학교) 등이 있다.

이번 부산-아세안 이스포츠 페스티벌은 2022 부산-아세안주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부산국제교류재단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한다. ‘게임도시 부산’의 브랜딩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한 부산-아세안 지역 시민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대항전 형식의 글로벌교류전으로 마련됐다.

페스티벌은 ▲ 부산-아세안 이스포츠 선수단 출정식(11:30) ▲ 배틀그라운드 게임종목 예·결선(12:30-17:30) 등으로 구성되며, 아세안 10개국

과 부산을 포함해 총 11개국에서 200여 명이 참여한다. 부대행사로 한-아세안 인디게임 전시, 부산 이스포츠 토크쇼, 글로벌 게임체험존(보드게임, 아케이드게임, 이벤트존)도 운영된다.

페스티벌은 별도의 예매없이 부산이스포츠경기장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부대행사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게임산업은 전세계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우리 아세안이 함께 선도할 수 있는 분야다”라며, “게임도시 부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가 아세안 청년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김해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합동추모제 거행

김해시는 25일 삼계근린공원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제5회 합동추모제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 김해시 희생자유족회(회장 안병대) 주최, 주관으로 유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제선언, 전통제례, 묵념, 추모사, 헌화와 분향 순으로 거행됐다.

또 삼계근린공원 내 건립한 위령비 제막식도

함께 열렸다. 155㎡ 면적에 추모비 1기, 취지문서 1기, 명단석 1기, 조형물로 구성된 위령비에는 136명 희생자 명단이 담겨 있다. 위령비는 2020년 말 준공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이번이 제막식을 갖게 됐다.

유족회 관계자는 “70여년 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널리 알리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뜻있는 김해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드리며 삼가 추모의 정을 바친다”며 “이번 합동추모제가 유가족의 오랜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새마을구미시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의 첫걸음

# K-반도체 특구, 반드시 구미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 글로벌 반도체 대기업 및 관련 중소기업 123개사, 종사자 8,200여명  
 ▶ 통합신공항 15분 거리 베투도시, 수출물류 비용 절감  
 ▶ 신속한 투자가 가능한 반도체 허기 좋은 도시 (풍부한 용수·전기, 구미하이테크밸리 즉시 입주가능)  
 ▶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내륙최대 국가공단 운영 노하우 보유

**수도권 집중, 지방소외 더 이상 NO!!**

구미시 · 구미상공회의소 · 구미중소기업협의회 · 구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 중소기업융합 대구경북연합회 구미융합회 · 구미여성기업인협의회 · 구미경제인협회



※본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알리고 싶은 말이나 주장, 사진, 만화의 내용을 주소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과 함께 200자 원고지 5매 이내로 우편이나 홈페이지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 40206 경북 울릉군 북면 울릉순환로 2814-3 울릉신문 편집국

☛홈페이지 : http://www.울릉신문.com

☛이메일 : jleesabu@naver.com

# OPINION

## 독도 광장

### 울릉도의 수산업 발전을 위한 소고

경북 울릉군의 오징어 채취기 어업은 울릉도의 가장 중요한 어업으로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산업인데 최근 남획과 온난화 현상으로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소득원 개발을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외해 가두리를 활용한 어류 양식 사업, 정지 구획어업 시험, 해상, 전복의 방류 사업, 우렁쉥이(멍게) 양식 등을 시도하였지만 큰 성과 없이 방류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부 접은 상태이다.

울릉군에서 심혈을 기울인 해삼방류 사업은 상품 크기가 되는 150g 이상은 마을어업 밖으로 나가 서식하므로 외부 잡수기에 의해서 채포되고 있어 방류는 울릉군에서 하고 소득은 외부인이 챙기는 “재주는 곰이 사고, 돈은 되놈이 먹는다”는 속담과 비슷한 상태이다.

또한 전복은 아직까지 방류량이 적어 많은 양이 자원으로 가입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울릉도는 동해 한가운데 위치한 천혜의 청정해역이면서 같은 위도의 육지와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다.

쿠로시오 영향을 받아 울릉도 해역은 제주도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매우 청정한 해역으로 어떻게 하면 울릉도의 수산업을 발전시켜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울릉도경제에 기여할 것인가를 숙고해야 할 것이다.

첫째가 울릉도 주변 해역의 수산자원을 외부에서 강탈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봄철 해삼 금어기가 해제되면 육지로부터 잡수기가 울릉도 연안에 출현하여 울릉도가 키운 해삼, 멍게, 소라 등을 채취해 씨를 말리고 있다.

방지책은 울릉도 해양생태 관리 수반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군과 어업인의 노력으로 자원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오징어어업의 대체 하는 어업을 개발해



김 경 학  
대한민국 신지식인(해양,수산)

보자. 울릉도와 독도 부근에는 300~2000m 사이에는 대게, 붉은 대게, 도화새우, 임연수어, 빨락 등이 풍부하므로 오징어 선박 일부라도 개조하여 이들을 잡는 어업(자망, 통발 등)으로 변경한다면 육지 어선과의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가 해삼, 전복, 소라 방류 사업의 적극적 추진이다.해삼, 전복, 소라는 울릉도 어업인의 소득을 창출하는 품목이므로 우선 현포에 있는 종자 생산센터를 활용하여 생산된 종자나 외부에서 구입된 종자 방류 사업을 통해 방류 사업을 적극적인 추진하고, 해역 관리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에 직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는 홍합, 멍게의 양식 사업 실시이다. 홍합과 멍게는 수중 수하식으로 양식하므로 바람과 높은 파도에 견딜 수가 있고 먹이를 주지 않고 자연 먹이에 의존하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다.

또 홍합은 멸종 위기 종이므로 양식을 통해 자원을 지키고 생태계 보호와 울릉군의 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한 울릉도는 어류 양식을 하기에 천혜의 조

건을 갖추고 있어 고급어류 양식 사업의 실시이다.

최근 기술의 발달로 10m 높은 파도에서도 얼마든지 어류 양식이 가능하다.

고급 어류(참돔, 우럭, 넙치, 방어, 연어 등)를 활용한 수중 그물 가두리 양식과 사용 빈도가 적은 어항을 활용한 축양이다.

울릉도에 육지로부터 공급되는 고급어류는 약 150톤으로 육지보다 Kg 당 8,000~10,000원 정도 비싸게 받고, 관광객에게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과거에는 어류 양식에 경험이 없어 겨울철 북서풍이 불고, 파도가 높아 사료 주는 것이 매우 어려웠으나 최근 수중 양식 기술 개발로 많은 문제점이 해결되어 지금이라도 어류 양식을 시도한다면 육지로부터 들어오는 고급 생선과 가격 경쟁에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본다.

또한 울릉도의 수산 생물 양식은 먹이를 주지 않는 멍게, 전복, 해삼, 소라 등은 어업인들이 수하식 양식이나 바다식 양식을 하고, 해조류(미역, 다시마, 대황 등) 또한 어업인이 수행한다.

어류 양식은 자본이 많이 필요하고 기술이 바탕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본이 있는 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거기에 울릉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민들은 오징어어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업에 관심이 많이 없으며, 기술력 부족과 수산 사업에 적극적 참여도 부족한 실정이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모든 일에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울릉군은 국립수산과학원, 경상북도 등과 어업인의 기술 교육을 통하여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여 수산양식이 어업인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 “춥고 건조한 겨울 난방기구 사용 주의하세요”



김 원 득  
경주소방서 왕오119안전센터장

뜰판에 누렇게 익어가던 벼들이 사라지고 가을 낙엽도 떨어지면서 부쩍 쌀쌀해진 날씨가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날이 추워지고 건조해지면 화목보일러, 전기장판 등 난방기구 사용량이 증가하여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 따

라서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한 방법을 안내해드리고자 한다.

첫째, 화목보일러를 너무 과열시키지 않으며 주변 땀감이나 습 등 가연물을 제거한다. 화목보일러는 온도조절장치가 없기 때문에 한계면에 너무 많은 연료를 투입하게 되면 과열에 의한 복사열로 주변 가연물에 불이 붙을 수 있다. 때문에 주기적인 주변 청소가 필요하며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전기장판 사용시 전, 후, 보관까지 주의 깊게 확인한다. 사용전 전선과열 여부, 파손 및 마모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 후에도 전원을 반드시 끄고 외출시는 플러그를 뽑는 것을 습관화한다. 보관시에도 돌돌 말아서 보관하고 무거운 물체는 올려놓지 않는다.

셋째, 멀티탭의 허용용량을 지킨다. 멀티탭에는 제한 용량이 정해져있다. 겨울철에 사용하는 전기온풍기, 전기히터, 전기장판 등 난방기기의

경우 소비전력이 높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여 적정 용량에 맞게 사용하거나,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다. 화재 사실을 조기에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 소화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는 빠른 화재인지와 진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겨울철 화재는 남의 일이 아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등 주변 어디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본인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시민분들께서 겨울철 난방기구를 사용하는데 있어 위의 사항들을 한번만 더 주의깊게 살펴주신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다. 시민분들의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나기를 기원하며 경주소방서 또한 경주 시민들의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 사설

### 울릉군의회 ‘수당 대폭 인상’ 과유불급 명심해야

울릉군의회가 내년 의원 월정수당(직무활동비)을 50% 올리는 안을 확정했다. 이는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1.7%)의 약 30배에 해당한다.

고급리·고환율·고물가·저성장 등 3고1저의 복합위기로 중앙·지방정부가 긴축재정에 돌입한 것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울릉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사기진작 등을 이유로 내년도 월정수당을 2022년에 비해 50% 인상된 2821만원(월 235만원)을 인상키로 했다고 한다. 문제는 울릉군이 공개한 2022년 제1차, 제2차 회의록에 따르면 울릉군 의정비심의회는 주민 수 등에 대한 검토와 고려를 하지 않고 사기진작 등을 이유로 월정수당 50% 인상을 결정하고 여론조사를 거쳐 이대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군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피하기 어려울 보인다.

기초의원 수당 인상을 반대하지는 않게 아니다. 노동자 임금처럼 기초의원 수당도 물가인상률에 비례해 올라야 한다. 문제는 공무원 임금이나 서민 생활임금과의 형평성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기초의원 월정수당은 지자체 주민 수와 재정 능력, 의정 실적,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임기 첫해에는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초과해 올릴 수 있다는 단서가 담렸다고 하나 작년의 인상 시도는 지나쳤다. 경북지역의 기초의회들과 비교해도 10배 이상 높다. 민생고를 헤아리는지 의문이다.

내년에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될 전망이다고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639조원)을 두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예산(679조5000원)보다 6%(40조5000억원) 줄인 이유다. 4급 이상 공무원의 내년 임금을 동결하고 5급 이하의 임금인상률을 물가인상률에 못미치는 1.7%로 정한 까닭이기도 하다.

이런 마당에 민생고 해결에 앞장서야 할 군의원이 자신의 밥그릇부터 먼저 챙긴다면 군민들이 어찌 생각하겠는가. 그것도 서민 생활임금 인상률보다 훨씬 높은 수당 인상을 시도하니 군민의 대변자인지, 셀러리맨인지 정체성마저 헷갈린다.

지난 과거에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회는 2005년 유급제로 전환됐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의 지방의회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방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다. 기초의회의 의정비 대폭 인상 추진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밥그릇 챙기기’로 비쳐져 아쉬움만 남는 대목이다.

한편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여비·직무 보수 성격의 월정수당을 합쳐서 책정된다. 의정활동비는 광역시도위원의 경우 월 150만원, 기초 시군구위원은 110만원 이하로 고정돼 있다. 반면 월정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지방의회가 추천한 인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의정비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겨우 13%에 불과하다.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지금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의 고달픈 삶을 보듬으면서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때이다. 정작해야 할 일은 손 놓은 채 월급 인상에만 매달린다면 지방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는냐는 소리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 금주의 울릉 주간날씨

11월 25일(금) ~ 12월 10일(토)

<b>25일 금</b>  최고 19℃ 최저 12℃	<b>26일 토</b>  최고 15℃ 최저 12℃	<b>27일 일</b>  최고 14℃ 최저 6℃	<b>28일 월</b>  최고 19℃ 최저 12℃
<b>29일 화</b>  최고 18℃ 최저 14℃	<b>30일 수</b>  최고 3℃ 최저 1℃	<b>12월 1일 목</b>  최고 4℃ 최저 -1℃	<b>12월 2일 금</b>  최고 6℃ 최저 1℃

## 울릉신문

발행·편집인/대표이사 정 대 휘

인쇄 (주)주영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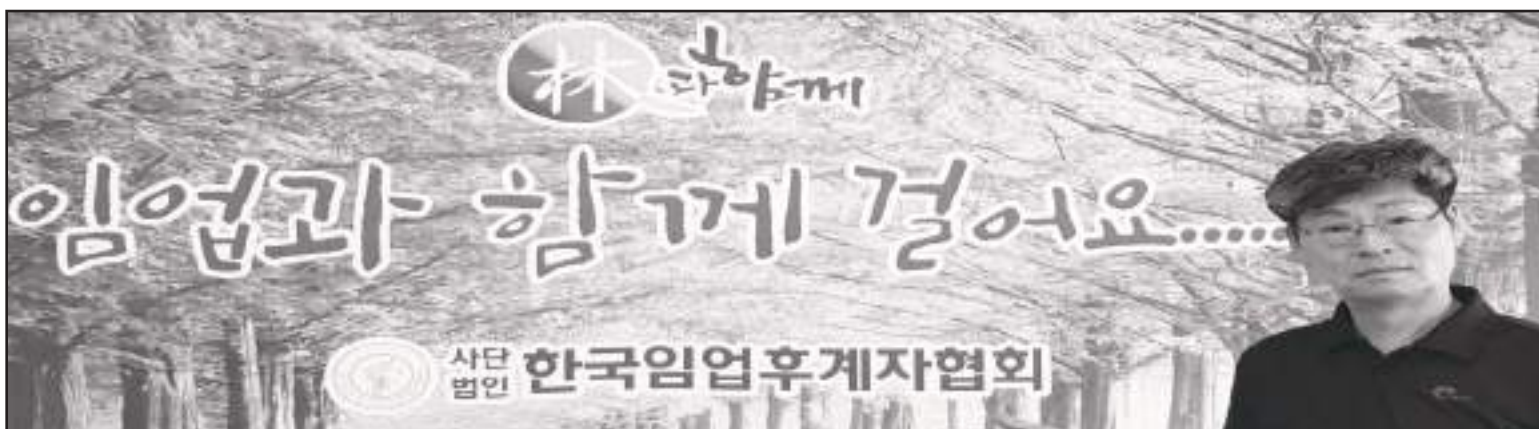
경북 울릉군 북면 울릉순환로 2814-3 e-mail : jleesabu@naver.com

기사제보/광고·구독 1899-7484 구독료 : 월 6000원/년 6만원

등록번호 : 경북, 다 01502

납부계좌 : 농협 301-0029-7870-11 정대휘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울릉 365 PR

개업, 임대, 대리점 등 PR의 모든 것

이유 있는 선택 PR에 관한 모든 정보~  
울릉신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광고주님을 모십니다

울릉신문/ 1899-7489

우안국투어

Usanguk Tour (주)우안국투어

대표이사 김수도

Tel 054-791-3636 Mobile 010-3516-1373 Fax 054-791-9199  
E-mail usk3636@daum.net

주소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1리 1번지 2층

ulleung Dure Tour

울릉두레관광(주)

이진 대표이사

010-2676-7494 / 010-2073-7494  
054-791-9696  
wls2qks@nate.com  
054-791-9797

QUERENCIA  
POOLVILLA RESORT / RESTAURANT

이종규 대표

경북 울릉군 북면 추산길 137  
010-5040-6666  
054-791-6996  
hongleetour@naver.com  
054-791-1999

캐런시아 풀빌라 리조트

조은공간 ENG  
인테리어공사, 창호공사, 시설품 유지 보수

정동희

경북 울릉군 서면 남양길 25-17(2층)  
Tel. 02-1644-1374  
Fax. 02-6925-3692  
Mobile. 010-5252-3535  
Email. bizhows@miridih.com

- 조립식 편설
- 인테리어
- 철구조물
- 주택대, 소수선전문
- 건물주조 변경
- 보일러 교체, 수리
- 전기난방 취급

짬뽕타운

054)791-5559

주소 (울릉독도장) 경북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722

CALL rent car

영업소장 조강제  
010-9956-2244

(주)콜렌트카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1길 6 (2층)  
TEL : (054)791-2666  
FAX : (054)791-9199

생활정보  
광고주님을 모십니다

생활정보  
광고주님을 모십니다

울릉신문/ 1899-7489

생활정보  
광고주님을 모십니다 1899-7489

생활정보  
광고주님을 모십니다 1899-7489

생활정보  
광고주님을 모십니다 1899-7489

생활정보  
광고주님을 모십니다 1899-7489

생활정보  
광고주님을 모십니다 1899-7489

생활정보  
광고주님을 모십니다 1899-7489

생활정보  
광고주님을 모십니다 1899-7489

생활정보  
광고주님을 모십니다 1899-7489

생활정보  
광고주님을 모십니다 1899-7489

울릉도 >> 전국 택배

## 영광상회

10% 할인

맛이 일품으로 소문난 울릉도 오징어, 명이갈매, 무시갱이잡탕, 자연산돌미역, 삼너물 등  
신선한 울릉도 특산물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CHECK POINT

생산자직판 / 대표 이소연

후원번호  
054)791-3233  
010-9381-3288

영광상회는 우리땅 독도를 응원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

울릉신문이 우리땅 독도를 응원 합니다!





# 크루즈선착장 내 울릉도 특산물·기념품 전시판매장

오징어, 호박엿, 마가목 식혜, 호박 식혜, 명이, 부지갱이, 삼나물, 돌미역  
울릉도 특산물·기념품 전품목

전국택배가능

사동항 특산물체험유통타운 1층 / 054)791-3304

**영양성분** 총내용량 500ml  
100ml당 55Kcal

100g 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나트륨 0mg	0%
탄수화물 13g	4%
당류 12g	12%
지방 0g	0%
트랜스지방 0g	-
포화지방 0g	0%
콜레스테롤 0mg	0%
단백질 0g	0%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

- 반품 및 교환장소: 구입처 또는 본사 (054-791-3304, 010-9711-6789)
- 제조원: 천장농업회사법인(경북 청도군 이서면 각계길25)
- 호박생산개발 판매원: 울릉도특산물영농회사법인 (경북 울릉군 북면 울릉순환로 2814-3번지)

NAVER 울릉도호박식혜 검색

## 전통 울릉도 호박식혜

재용개발·울릉도특산물영농회사법인  
천장농업인 정대휘  
울릉도호박 건조분말 1% (생호박 13%)

**특히 받은 전통제조방법**

햇살 아래 말린 국내산 엿기름과 엽쌀로 고두밥을 지어 12시간 숙성(당화) 시키고 3시간을 끓여서 우리의 옛날식혜 맛을 그대로 전합니다.

2012 전국소상공인 대회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2011 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청장 표창

특허: 식혜제조방법 제 10-1124786호

영하 18℃ 이하  
냉동보관

무보존료    무색소    무카페인

• 제품명: 울릉도 호박식혜    • 등록제조번호: 2019057102522    • 식물의 유형: 혼합음료    • 원재료명: 호박(국내산, 울릉도), 엿기름(국내산, 울릉도), 엽쌀, 당수수    • 유통기한: 별도표기    • 보관방법: 영하 18℃ 이하 냉동보관    • 재질: 병(PET), 뚜껑(PA)    • 주의사항: 전자렌지에 대우거나 가열하지 마십시오. 용기가 팽창, 변형, 손상되었거나 내용물이 변질되었을 경우 드시지 마십시오. 개봉 후 바로 드시거나 냉장보관 하십시오.

•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 본 제품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평창군, 2023년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개최지 확정

평창군은 지난 1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2 아시아탁구연맹 총회에서 2023년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개최지로 평창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대회는 아시아탁구연맹(ATTU) 집행위원회 회의(카타르 도하, 3.29~30) 및 2023년 아시아탁구대회 유치 입찰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이 확정되어 국내 개최도시 유치전을 통해 평창군이 최종 확정됐으며, 이번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대한탁구협회와 평창군에 따르면 내

년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평창동경장에서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가 개최되며, 단일 종목으로 가장 많은 30여개국 500여 명의 임원·선수가 참가하는 대회로, 세계대회에 비견되는 대회로서 세계 최강 중국을 비롯해 홍콩, 싱가포르, 일본, 대만의 톱랭커들이 대거 출전하여 남녀 단·복식, 남녀 단체전, 혼합복식 등 7종목으로 열리게 된다.

2023년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에는 2024년 파리올림픽 단체전(개인전 2장) 및 혼합복식 출전권이 각 1장씩, 2024년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단체전) 출전권이 남녀 각 10장씩 배정되어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 확보를 위한 참가국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으며, 각종 협회는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 조기 출전권 확보를 위해 세계 톱랭커들을 대거 출전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벌써 대회 흥행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는 1952년 제1회 싱가포르 첫 번째 개최로 국내에서는 1967년 제7회 서울, 2005년 제17회 제주, 2013년 부산에 이어 네 번째로 평창

군은 향후 WTT 탁구대회 유치를 위한 교두보 및 시험 무대로 아시아선수권 유치를 결정했다.

대한탁구협회로부터 2023년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평창 확정 소식을 전달받은 심재국 평창군수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첫 국제대회를 유치하게 된 것에 대해 평창군민들은 환영의 분위기이며,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참가하여 Happy 700 평창의 브랜드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국내·외 탁구 마니아들의 방문으로 숙박



· 관광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이번 대회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또한 동시에 "이번 대회 유치를 위해 고생하신 올림픽 IOC위원인 유승민 대

## 전통가요지킴이 '조명섭' 원주시 홍보대사 위촉

특히 봉대초, 반곡중, 원주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며 학창시절을 원주에서 보낸 조명섭은 작년에 원주시 관광홍보대사로 위촉되며 원주시의 관광자원과 지역축제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한편 지난 23일 조명섭 공식 팬카페 '에밀스' 회원 30여 명은 이번 홍보대사 위촉 및 데뷔 3주년을 기념하고자 밤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에 연탄 4000장과 원주 쌀 토도미 4kg 100포를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동참했다.

조명섭 가수는 "한국의 음악과 원주를 더욱 빛낼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라며, "홍보대사로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돕겠다"라고 적극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원주시는 지난 24일 전통가요지킴이로 불리는 가수 조명섭을 원주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조명섭은 2019년 KBS2 노래가 좋아 특별 프로그램 '트로트가 좋아' 왕중왕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일약 스타덤에 오르며, 제26회 KBS 연예대상 핫이슈 예능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원주 '새콤달콤 치약산 딸기' 본격 출하

원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약산 딸기가 11월 말부터 본격 출하를 시작한다.

치약산 딸기는 일교차가 크고 유통기간이 짧아 신선도와 당도가 높고 맛이 좋아 주로 직거래, 학교 급식, 농협 하나로 마트, 체협 등 대부분 지역 내 로컬푸드로 판매되고 있다.

특히 딸기체협 농장이 인기를 끌면서 어린이들에게 즐길 거리 제공과 동시에 농업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원주시는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고소득 작목인 딸기 재배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현재 재배면적은 20농가 5ha에 이르고 있다.

## 화천군 명예군민패 증정

화천지역을 떠나는 27사단 '이기자 부대' 지휘관들이 화천군을 방문해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눴다.

민인기 사단장, 김남우 부사단장을 비롯해 신기완 참모장과 이선언, 이동철, 김승근, 양소라 여단장, 유년상 주임원사 등 부대 지휘관들이 24일 오후 화천군청을 찾았다.

부대 이전으로 화천을 떠나게 된 지휘관들이지만, 그간 화천군과 이기자 부대가 쌓아온 끈끈한 정을 잊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문순 군수를 비롯한 전 실·과·소장들 역시 군청 입구에서부터 이들을 맞이하며 아쉬움에 손을 놓지 못했다.

화천군은 그간 화천을 지켜주고, 군민들의 벗이자 한 가족처럼 지내온 지휘관들에게 군민들을 대신해 명예군민패를 전달했다.

민인기 27사단장은 "저와 화천과의 인연은 1900년부터인 것으로 기억한다. 이후 2015년 명예군민이 되는 등 화천은 늘 마음 속의 고향과 같은 곳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힘들 때나 기쁠 때 곁에 있어주신 화천군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잊지 못할 것 같다"며 "어디에 있던지 항상 화천군의 발전을 응원하겠다"고 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뒀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가슴 한켠이 뻥 뚫려 버린 느낌"이라며 "항상 화천군민을 가족처럼 대해준 이기자 부대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27사단 이기자 부대는 1953년 창설 이후 1963년부터 화천군 사내면에 주둔하며 중동부 전선을 수호해 온 육군 최정예 부대다.

## 동해시, 희망2023 나눔캠페인 성금 모금

동해시와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희망2023 나눔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강원"을 슬로건으로 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되며, 성금 및 물품 기부는 시청 복지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개설된 이웃돕기 성금 창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계좌, ARS, 문자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기부자에게는 기부영수증이 발급되며,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모금은 지속적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모금활동 강화를 위해 QR 코드를 통한 기부 신청 및 각종 페이(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 결제 등 비대면 모금 방식으로 진행되며, 행사기간 및 연중 모금된 성금은 내년 한 해 동안 저소득층 생계 의료비, 명절 생필품과 난방비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해 배분될 예정이다.

이기선 복지과장은 "코로나 19 장기화 및 경기침체로 사회적 분위기가 다소 침체되어 있지만 동절기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어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 강원도, 공적개발원조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지자체·기업 협력 ODA 사업 발굴, 도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강원도는 도내 대표적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전문기관인 강원국제개발협력센터와 공동으로 11.25일 강원도 국제도시훈련센터에서 도내 기업인 및 공무원 20여명을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워크숍은 규모와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ODA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선도적 대응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해외 수출에 관심있는 도내 기업인들이 참석하여 지자체와 함께 국가 ODA 공모사업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함의,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사례, 국제개발협력의 이해와 참여 전략을 주제로 하며 국제기구 및 코이카(KOICA) 등에서 근무한 현장경험이 풍부한 강사진이 참여하여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게 된다.

곽영준 국제통상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기본개념 및 동향을 이해하고, 지자체와 기업이 협력하여 ODA 사업 발굴 및 해외 시장진출 방안을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삼척마이스터고,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로 재탄생

미래가 밝을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삼척마이스터고는 신경교 교육감의 공약인 '지역산업 연계 테마고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어, '수소산업 직업교육지원 센터'를 도교육청 47억, 삼척시(시장 박상수) 10억 등 총 57억의 예산으로 건립해 수소 전문가를 양성할 예정이다.

박광서 미래교육과장은 "삼척마이스터고는 현재까지 4년 연속 취업률 90% 이상 달성한 최우수 고등학교"라며, "앞으로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로 재탄생해 기존 발전산업의 인재 양성은 물론 수소 에너지 전문가를 배출해 직업교육의 위상을 높여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 교명 변경 안건'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강원도의회 심의·의결을 받아 공포할 예정이다.

삼척마이스터고는 24일, 발전산업 및 에너지 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교명(안)으로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로 확정했다.

삼척마이스터고는 지난달 교명변경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교육공동체(교직원, 학생·학부모 등) 3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 82.2%, 현재 교명(삼척마이스터고) 유지 17.5%로 발표했다.

공인배 교장은 "최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정책 변화 등의 어려움과 교명에서 학교의 정체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며, "지역의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전국단위 학생 모집에 유리한 이름으로 변경하는데 교육가족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으므로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

## 춘천시, 3년 연속 지역먹거리 지수 최우수

춘천시가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3년 연속으로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최근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를 개최, 159개 지자체 중 최우수 지자체로 춘천시를 뽑았다.

2020년 로컬푸드 지수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 선정이다.

지역먹거리 지수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및 공공급식 분야의 로컬푸드 생산·소비 체계, 지역경제 활성화, 먹거리 거버넌스 분야 등에서 지자체의 실천 노력과 확산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17개 항목 평가, 6가지 등급(S-A-B-C-D-E)을 부여한다.

최우수 지자체 선정은 2019년 춘천푸드플랜 수립 후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성과이다.

특히 출연기관으로 설립한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관내 학교 급식과 공공급식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춘천 먹거리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2022년 시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으로 중소농의 판로를 개척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대휘 기자



# 광주광역시, 광주 온(on) 온라인 설문조사 시범 운영

## 24~28일 '시민 정책참여단' 대상 사전테스트

광주광역시는 24일부터 28일까지 시정 현안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범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12월부터 실시하는 시정 현안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앞서 사전테스트를 위해 추진됐다.

시범 설문조사는 광주· 전남지역 가뭄상황이 지속되면서 광주시 상수원 저수율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인식 제고 및 홍보를 위해 '가뭄 대책· 물 절약 실천 관련 의견수렴'을 주제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온라인 시민소통 플랫폼 '광주온(ON)'에 설문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설문

조사에 참여할 '시민 정책참여단' 2만명을 목표로 모집활동을 벌여 현재까지 2만4000여 명이 참여를 희망했다.

'시민 정책참여단'은 만 14세 이상 광주시민 및 거주자로 자치구· 성· 연령별로 다양하게 구성됐으며, 시정 현안에 대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링크 접속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광주시는 12월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문주제, 설문기간, 설문문항 등을 설계하고 2~3회에 걸쳐 사전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시범운영을 마치고 온라인 설문조사가 본격화되면 광주시 현안 이슈 뿐 아니라 생활밀착형 정책 주제 등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시민의 의견을 물어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반영해 시민의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소통을 강화해 정책 수용성을 높여겠다는 방침이다.

김성수 시 시민소통과장은 "다양한 의견이 행정 전반에 반영돼 광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 개선에 활용되도록 온라인 설문조사 및 시민 정책참여단 모집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순천만, 흑두루미 1만여 마리 도래

### 순천시, 정부에 흑두루미 서식지 확대 지원 건의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방문...습지 복원 지원 건의

순천시는 지난 24일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순천만을 찾았다고 밝혔다. 일본의 흑두루미가 순천시로 역유입됨에 따라 순천만 흑두루미 서식지 및 AI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와 소통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제적인 멸종위기종 흑두루미 1만여 마리가 순천만에서 관찰된다. 이는 1986년 흑두루미 70여 마리가 첫 관찰된 이후 26년 만에 140배나 증가한 수치다.

11월 초부터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이즈미를 강타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를 피해 이즈미 흑두루미가 청정지역인 순천만으로 대거 이동한 것이다.

흑두루미는 전 세계 1만 7천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위기종으로 올해 60%가 순천만을 찾은 건 순천시가 서식 환경을 적극 개선한 이유가 크다.

시는 2009년부터 환경저해시설 철거, 습지복원, 전봇대 282개를 뽑고 친환경 흑두루미 희망농업 단지를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흑두루미의 월동지를 만드는데 힘을 기울였다.

전 세계 흑두루미의 60%가 찾는 순천만이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있다. 바로 흑두루미 서식지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금의 서식지 상황으로 밀려오는 흑두루미를 품기에는 너무 좁아 흑두루미 활동 영역을 넓혀줘야 한다.

이에 순천시는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흑두루미 서식지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

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생태계보호지구내 전신주 제거 확대, 친환경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 확대, 동천하구 훼손지 복원사업 확대 내용을 담았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일본 이즈미 흑두루미 탈출 사태로 순천만은 전세계 흑두루미 종 보전을 위해 중요한 서식지임이 확인됐다."면서 "환경부, 문화재청 등 국가가 적극 개입해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윤수 기자

## 나주 천연염색재단 대한민국 규방공예 공모대전 수상작 전시



(재)나주천연염색문화재단은 오는 27일까지 '2022 대한민국 전통규방공예 공모대전' 수상작

을 전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한국전통 규방문화 연합회에서 주최·주

/은윤수 기자

관한 공모대전은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작품을 공모해 심사를 거쳐 19일 한국천연염색박물관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전시회에서는 공모전 최우수상 작품 '수 서각 삼각 노리개', 우수상 작품 '흔적을 찾아서 조각보', '누비 배자' 등 작품 31점을 선보인다.

규방 공예품은 대부분 천연염색 천을 사용한 작품으로 구성돼 천연염색과 규방공예의 아름다운 조화를 감상할 수 있다.

임경렬 재단상임이사 겸 한국천연염색박물관장은 "이번 전시회는 천연염색의 다양한 기법과 전통 규방 공예가 조화를 이루는 우수한 작품을 전시한다"라며 "시민들에게 다소 생소한 규방공예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완주 4명의 조각가 "네 가지 개성의 향연" 개인전

(재)완주문화재단은 2022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의 결과지원으로 진행되는 권성수, 김성석, 박창은, 최용선의 개인전을 각각 오는 12월 4일까지 북함문화지구 누에 아트를 일대에서 진행한다. 완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4명의 조각가의 작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권성수 작가의 '여정'은 누에아트홀 1, 2전시장에서 열리며, 광활한 우주를 방랑하는 행성의 여정을 표현했다. 커다란 철과 돌로 이루어진 6작품은 마치 한 작품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보는 이들에게 숙연한 마음이 들게 만든다. 작가는 작업과정이 나 스스로를 다시 찾는 여정이기도 했다고도 전했다.

김성석 작가의 조각이야기 'In生'은 누에아트홀 3전시장에서 전시된다. 작품을 대하는 이들에게 철이 따듯한 물성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전한 김성석 작가는 우리네 속담과 같이 동물을 의인화함을 통해 은유적인 감정 이입을 꾀했다는 평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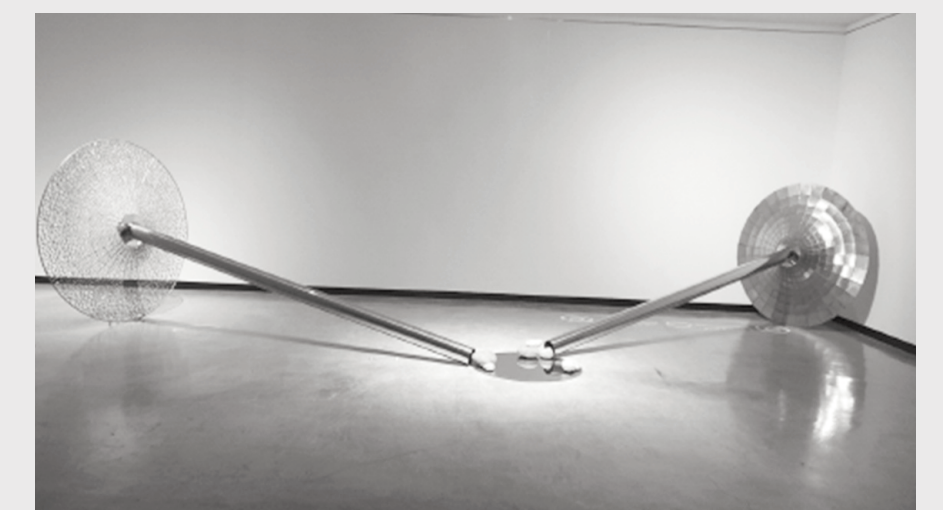
박창은 작가의 시리즈 인간, 기하 그리고 공간 part.1-1(인간)은 누에 아트홀 중앙전시홀에서 전시된다. 관객들은 박창은 작가가 고민해 온 인간상이 반영된 리얼한 조각물을 관람할 수 있다.

가족문화교육원 앞 잔디광장에서 전시되는 최용선 작가의 '우물 속 풍경'은 우물에서 찾을 수 있는 '동그라미'라는 속성을 활용하여 그 속에 갇힌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최용선 작가는 작년 사업에 이어 올해 '다시지원' 분야에 신청했다. 대형 조각을 만들고 설치할 수 있는 지원금과 전시공간지원 때문이다. 박창은 작가도 작년 준비지원을 거쳐 올해 '결과지원' 분야에 지원했다. 준비 과정을 거쳐,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한 과정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최용선 작가는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은 완주군에서 유일하게 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랜 시간과 많은 공력, 재료들이 필요한 조각작업들이 이러한 지원을 통해 응원받으며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앞으로의 창작활동에 있어 큰 원동력이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전시는 완주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2022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의 창작 지원금과 전시공간지원으로 진행되며 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완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은재원 기자



## 목포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필요성 강조에 나서

목포소방서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차량 화재는 초기진압 실패 시 순식간에 연소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화재진압은 인명· 재산피해 감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2020년 5월부터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

무가 7인승 차량에서 5인승으로 확대 운영 중이며 대형마트나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한 만큼 1차량 1소화기는 필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박원국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진동 시험 등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한 제품이다."라며 "꼭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사용하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보은군, 민선 8기 첫 본예산안 3463억원 편성

보은군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해 총 3463억7433만원을 민선 8기 첫 본예산안을 보은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7.9%인 755억2885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이중 일반회계 세입이 크게 감액됐는데 농축산분야 등 국·도비 보조사업예산 통지가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감액 이유를 밝혔다.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세 수입은 올해 본예산 대비 19억3000여만원이 증가한 304억2300만원, 세외수입도

18억6000여만원이 증가한 146억2000여만원, 조정교부금도 증가한 214억4900여만원으로 편성했다.

세출예산은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했으며 ▲사회복지분야 788억원 ▲농림분야 561억원 ▲환경보호분야 51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49억원 ▲일반공공행정분야 158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149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92억원 ▲교통 및 물류분야 76억원 ▲보건분야 75억원 ▲인건비 등 기타

분야 696억원을 편성했다.

우선적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읍면 및 권역에 대한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4단계 충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2026년까지 82만7천㎡ 규모의 보은제3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마로면에 한우유전자 클라우드 연구센터 구축, 2026년까지 비룡호수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식물공장형 및 첨단온실형 시범포를 구축하는 한편 스마트 도시재생을 추진 골목상권을 살리고 농촌협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통한 인프라 구축과 청소년·근로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보청전에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지방하천 정비도 지속해나기면서 응급의료기관 지원 및 신경과 개설, 산후 조리비 지원, 경로당 주치의 방문 서비스, AI기반 실버케어 서비스 등 복지사업도 같이 추진한다.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영유아·청소년·학생·청년·평생교육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청년창업, 청년귀농인 지원 등 다양한 청년정책 계획도 수립했다.



이밖에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민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라며 집행부가 계획한 사업을 추진해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군의회에 예산안의 원안 의결"을 주문했다.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최재형 군수는 "2023년은 민선 8기

/정대휘 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 인문학 강의로 아산시민에게 신선한 즐거움 선사



박경귀 아산시장이 24일 시청 시민회에서 열린 고불 인문학 아카데미에 강연자로 나섰다.

아산시는 시민에게 양질의 인문학 강연을 제공하기 위해 대한민국 대표 고전 평론가인 고미숙 선생을 비롯해 김현 서

울대 인문학 연구원 교수, 양정문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등 초호화 강사진을 초청해 릴레이 인문학 강연을 진행 중이다.

박 시장은 이날 강연에서 "고대 그리스 문명은 현대 서양 문명의 뿌리이자 스승"이라면서 "현대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 법치를 창안해 낸 그리스인들에 대해 배우면 현대 국가의 보편적 가치와 관념, 문화예술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며 인문학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아산시장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지혜로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역할도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학교에 고전읽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청소년들이 고전을 많이 읽는 환경을 조성하고, 고품격 문화예술 도시를 만들어 시민들이 양질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최광락 아산시 평생학습관장은 "2022년 처음 시행된 인문학 아카데미에 예상보다 시민들의 호응이 컸다"면서 "올해 수준 높은 인문학 강연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을 직접 확인한 만큼 내년에는 시민들에게 더 큰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더 다채로운 강연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아산시, '지역 먹거리 지수' 우수 선정로컬푸드, 공공 급식 분야 추진성과 인정받아



아산시가 지난 24일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 '2022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상을 받았다.

시는 전국 15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먹거리 정책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측정해 '2022년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10개 지자체에 선정돼 먹거리 정책에 대한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학교) 급식 분야, 안전성 관리 분야, 농기소득 안정, 일자리 창출 실적, 푸드플랜 추진체계 구축 등 먹거리 정책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손용훈 먹거리정책과장은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아산시의 먹거리 정책에 대한 역량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푸드플랜 활성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에 앞장서며 먹거리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 지역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에는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 10개 점이 운영 중으로 직매장에 700여 농가가 500여 품목을 공급하며 월평균 8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지난해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 67억원, 축산물 60억원, 가공식품 8억원의 로컬푸드를 공급했다.

또 기획생산 출하회 조직화와 참여기관 산지 투여, 급식데이 행사 등을 추진해 전체 공공 급식 농산물 중 65%를 지역농산물로 공급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꿀잼 힐링 명소'로 거듭난다 2023년 77억 원 예산투입, 휴양림 인프라 대대적 확충 나서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이 대대적 인프라 확충으로 '꿀잼 힐링 명소'로 거듭난다.

지난 25일 시에 따르면 산림휴양 수요 증가에 대응해 2023년 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옥화자연휴양림 시설개선을 한다.

시는 시설개선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해 반려견 캠프존과 트리 클라이밍 체험 시설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체험과 놀이가 가능한 '꿀잼 휴양림'을 조성한다.

또 19억 원을 들여 지하 1층과 지상

심신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심신의 건강과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며 2024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 시설이 노후화돼 정비 요구가 많았던 산림욕장에 총 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쉼베드와 숲속도서관, 산책로, 목재데크 등의 산림욕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했다. 뿐만 아니라 화장실과 샤워실 등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배수로 정비로 휴양림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개선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를 반영한 특색 있는 꿀잼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가활동의 장소로서 산림휴양 공간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림휴양 인프라 개선 및 확충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옥천군 먹거리지수평가 A등급

옥천군은 3년 연속 전국 먹거리 지수 A등급 지자체로 평가받으며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에 두각을 보이고 있다.

군은 올해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주관한 '2022년 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A등급 지자체에 선정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상을 수상했다.

지수 측정은 2020년부터 로컬푸드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산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59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 생산소비 체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로 진행됐으며, 군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로컬푸드직매장 등 운영 실적과 먹거리 계획 공적 추진체계 마련, 다품목 생산체계 지원 등의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로컬푸드직매장, 옥천푸드유통센터, 옥천푸드 거점 가공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먹거리 생산소비 체계의 기반을 다져왔으며, 내년도에는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17년 수립된 옥천군 제1기 먹거리 종합계획에 이어 민·관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다양한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제2기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옥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중진 친환경종합분석센터를 통해 지역 먹거리 안전성 확보로 지역인증제도(옥천푸드인증제) 활성화를 도모했고, 각종 교육을 통한 생산자 조직화에 힘쓰고 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3년 연속 전국 먹거리 지수 A등급의 성과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구축을 위한 생산자의 노력과 소비자의 신뢰, 군의 정책적 노력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 예산군, 교통사고 예방 위한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역· 시내 주요 교차로·국도 등 36대 설치

어린이보호구역예산군은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군은 14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와 시내 주요 교차로 21개소, 국도40호 7개소 등 총 36개소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36대를 설치했다.

특히 일명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군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45개소 중 올해 구만초등학교를 비롯한 8개

소를 마지막으로 모두 설치를 완료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국도 40호선은 지난 7월 21일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신호 위반 및 과속 주행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 제기돼 왔으며, 이번에 무인 단속카메라가 설치되면서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선진화된 교통환경개선 시설물 구축



이 필요하다"며 "군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대휘 기자

## 보령시, 1회용품 사용규제 대비 특별점검

2022년 11월 24일부터 (도시관리사업과 3층 33호 회의실)

**입상에서 1회용품이 더 줄어듭니다**

수배품, 판매물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주관한 '2022년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10개 지자체에 선정돼 먹거리 정책에 대한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학교) 급식 분야, 안전성 관리 분야, 농기소득 안정, 일자리 창출 실적, 푸드플랜 추진체계 구축 등 먹거리 정책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손용훈 먹거리정책과장은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아산시의 먹거리 정책에 대한 역량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푸드플랜 활성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에 앞장서며 먹거리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 지역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에는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 10개 점이 운영 중으로 직매장에 700여 농가가 500여 품목을 공급하며 월평균 8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지난해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 67억원, 축산물 60억원, 가공식품 8억원의 로컬푸드를 공급했다.

또 기획생산 출하회 조직화와 참여기관 산지 투여, 급식데이 행사 등을 추진해 전체 공공 급식 농산물 중 65%를 지역농산물로 공급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사용금지**  
1회용 분투 및 소분백 (중량소분백 해당)

**기본 품목**  
무인교통카메라 1회용 분투 및 소분백 (중량소분백 해당) 1회용 분투 및 소분백 (중량소분백 해당) 1회용 분투 및 소분백 (중량소분백 해당)

이 금지돼 있던 1회용 비닐봉투는 편의점, 제과점에서 사용될 수 없다.

또한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도 전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는 매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경우 1회용품 무상제공이 가능하다.

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신규 규제 품목에 한해 1년간 유예기간을 갖고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며, 과태료 처분은 유예하되 해당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제도 홍보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연현 환경보호과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환경보호를 위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이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

보령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부터 강화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대규모 슈퍼마켓(165㎡이상)에서 사용



# 제주도, 천년 고찰 봉은사 앞마당서 감귤 소비 촉진

## 24일 역사·문화 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상생교류 업무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가 서울시 강남구 도심 속 고찰(古刹) 봉은사에서 제주 대표 특산품인 제주감귤 판매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했다.

제주도는 이날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와 '역사·문화 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7일까지 사찰 내 보우당 앞마당에서 감귤 판촉 행사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한다.

4일간 진행되는 소비 촉진 행사 기간에는 제주감귤과 감귤 가공제품 할인 판매장을 운영해 소비자가 고품질의 제주감귤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시관 관람을 통해 제주 감귤의 우수성과 다양한 가치를 알린다.

제주감귤 체험장을 통해 제주 감귤밭 풍경 입체액자와 감귤 핸드폰 그림책 만들기 등을 통해 친숙한 감귤의 이미지를 전파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관을 마련해 '마음의 고향 제주'를 홍보하며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취임 이후 5개월간 수많은 단체·기관과 다양한 방식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봉은사와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다"면서 "역사·문화 교류와 함께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분이 힘을 모아주셔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이어 오지사는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하며 국보 제180호 세한도를 남긴 추사(秋史) 김정희 선생과 봉은사의

인연을 소개하며 "추사가 제주와 봉은사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 이번 역사·문화 교류의 맥과 이어진다"며 "제주감귤이 평화와 상생, 사

회 안정과 행복을 전파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봉은사 '관전(飯殿)' 현판의 글씨는 추사가 별세하기 시를 쓴 것으로, 추사체의 완성이라 일컬어질 만큼 중요한 유물이다. 추사는 제주 유배가 풀린 뒤 함경도 북청에서 2년간 유배를 마치고 경기 과천에 기거하며 봉은사를 자주 왕래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은 "추사 선생 뿐만 아니라 지금의 봉은사가 있기까지 큰 역할을 한 보우(普雨)스님도 제주와 인연이 깊다"며 "도심 속 전통사찰에서 제주도와와 상생교류 협력이 처음인 만큼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영훈 지사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 관음사 주지 허은스님, 강승표 농협 본부장, 김문일 새감귤연합회장, 송창구 감귤농협협동조합장 등과 점심공양을 함께 한 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제주도는 봉은사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심 속 전통 사찰이자 역사 문화의 상징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봉은사는 제주도 대표 특산물인 감귤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촉진 및 홍보를 위한 마케팅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은재원 기자

# 제주도, '평화의 길' 일곱 번째 소길리 4·3길 개통



제주4·3의 역사와 정신을 기리는 일곱 번째 4·3길이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에서 23일 개통됐다.

'제주애월 소길리마을 4·3길 개통식'이 23일 오후 2시 소길리 리사무소에서 애월읍 주민, 4·3유족, 도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100여 가호 규모의 작은 마을이던 소길리는 1948년부터 6·25전쟁 이후까지 무장대와 토벌대에 의해 주민 70여 명이 희생된 아픈 과거를 품고 있다.

제주도는 4·3 당시 희생된 소길리 주민들의 넋을 기리고, 통탄의 역사현장을

미래세대에 알려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도록 소길리에 일곱 번째 4·3길을 조성했다.

소길리 4·3길은 총 8km 구간으로 소길리사무소, 할망당 4·3성, 소길리 경찰파견소터, 명덕동산 4·3성, 배나모를굴, 윤남비 경찰주둔소, 윤남비못, 원동 주막번데기, 원동 경찰주둔소, 원동지, 원동군주둔지 등이 이어져 있다.

제주도와 소길리마을회 주최·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개통식에는 오영훈 지사, 김경학 도의회 의장, 강철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권 4·3특별위원회 위원

장, 오인종 4·3유족회장,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이루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건널 수 없는 강'이라고 여겼지만 4·3유족, 국민과 함께 강을 건널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4·3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국가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곱 번째 개통된 소길리 4·3길이 지닌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소길리 4·3길이 소길리의 발전과 변영에 마

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인종 제주4·3희생자 유족회장은 "과거 마을이 초토화된 아픔을 딛고 소길리마을을 크게 키워주셔서 고맙다"면서 "일곱 번째 평화의 길이 대한민국 변영으로 가는 초석의 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소길리 4·3길에는 제주4·3의 역사가 옷이 담겨있다"면서 "4·3길을 걸으면서 4·3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영령들을 위로하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오영훈 지사는 개통식 이후 장전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소길리 4·3길을 걸으며 미래세대와 함께 4·3의 아픔을 공유하고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4·3길은 2015년 동광마을을 시작으로 2016년 의귀·북촌마을, 2017년 금악·가시마을, 2018년 오라마을 6개소가 조성돼 평화·인권의 교육현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2월 공모를 통해 소길리와 아라동 4·3길로 선정됐으며, 아라동은 오는 12월에 개통될 예정이다.

/은재원 기자

# 제주 '하영걸길' 걸어보셨나요?



서귀포보건소는 9월부터 12월 17일까지 주2회(수, 토요일) 하영울레 코스에서 걷기지도자와 함께하는 상설 걷기 프로그램 '하영걸길'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서귀포시 걷기실천율은 평균 28.7%로 전국 평균 40.3% 대비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비만율도 36.5%로 전국 32.2%에 비해 현저히 높아 걷기운동을 통한 건강행태의 변화를 주기 위하여 서귀포시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일상 속 걷기 활성화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범시민 건강생활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혼자 걷기 어려운, 어디로 걸을지 방향을 모르는, 스스로 올바른 걷기 자세를 모르거나 걷기 운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지역주민에게 쉽고 안전한 걷기를 제공하는 상설 걷기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2022년 양성한 걷기지도자(2급) 19명을 중심으로 서귀포 도심 속 울레길인 '하영울레 1-3코스(6~8km)'에서 주2회(오전 9-12시)에 운영하고 있다.

사전 신청한 주민들은 현장에 도착하면 걷기지도자가 알려주는 올바른 걷기 자세법 및 주의사항을 안내 받고 스트레칭을 실시한다. 걷기 시간은 코스별 2-3시간 소요되며, 지도자들은 참여자들의 선두와 후미에서 서서 속도와 완보를 병행하면서 속도를 조절하고 뒤처지는 시민은 없는지 걷기를 지지하고 독려하면서 걷기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매주 수요일·토요일 아침 9시면 시청 안내소 앞에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 '오늘은 몇 코스 걸으시나요?', '지난주에 3코스 걸었는데 숨겨진 볼거리로 많고 앞으로 꾸준히 참여해서 체력과 근력을 키우고 싶어요'라며 참가자들이 서로 소감을 공유하며 걷기가 즐겁다고 답소를 나누곤 한다.

현재까지 프로그램 참여 실적은 17회 301명이며, 6회 이상 하영울레 코스 완주 성공자에게는 물품을 드리고 있다.

더불어 보건소에서는 하영울레 코스와 연계한 다양한 웰런지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10월에는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한 '하영 힐링하길', 11월에는 음주폐해예방의 달을 맞이하여 '함께 걸어가요!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마련해 시민들의 걷기 참여를 홍보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꾸준한 걷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걷기실천 확대를 시민들의 걷기실천율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비만율을 감소시켜 건강한 서귀포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은재원 기자

# 가을철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불법유통 단속

소나무류 취급업체 집중단속을 통한 재선충병 확산 근절



제주시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단속반(3개반/6명)을 투입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취급업체

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 43개소에 대한 집중 단속 및 화목 사용농가 등 소나무류 불법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

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소나무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방문하여 사전 안내를 통해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단속은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조경수 불법 유통 및 소나무 목재 불법 사용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며 유통사찰 적발 시 벌금 및 과태료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지 특별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사용 등이 발견되면 제주시 공원녹지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은재원 기자

# '곰들락한 집' 시상

강병삼 제주시장은 지난 24일 제주시청 시청실에서 2022년 '곰들락한 집' 수상작 3개소에 대하여, 현관 및 상패를 수여했다.

이번 2022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상작은 주택부지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해 도심 속 녹색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택의 개방성 및 생태공간을 잘 조성한 아름다운 주택으로 ▲제주의 전통 돌담집의 아름다움이 있는 조천읍 함덕리 주택 ▲집 안에 있는 풍광이 주는 아름다움이 있는 애월읍 고내리 주택 ▲애정으로 지난 난초와 앞마당이 잘 가꾸진 도남동 주택이 선정됐다.

올 해곰들락한 집선정심사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제주시 홈페이지와 방문접수를 통하여 총 7개소가 접수됐고, 현장답사 등을 거쳐, 지난 11월 2일 선정위원회 개최 후 최종 결정됐다.

선정된 3개 주택은 전시패널로 제작되어, 11월 28일부터 2주간 제주시청 청사 내 전시하여 시민들께 홍보할 예정이다.



# 경북도, 3년 만에 현장서 사과 홍보행사 열어

## 지난 25~27일, 3일간 대구스타디움서 사과홍보 행사 열려 15개 시군에서 생산한 사과, 1상자(2.5kg) 6천원에 판매

경북도는 지역 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2022 경북사과 홍보행사'를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대구스타디움 서편광장에서 개최했다.

그간 본격적인 사과 출하기인 매년 11월에 서울 등 대도시에서 개최했으나, 지난 2년간은 코로나 19로 인해 현장 판매가 불가능해 부득이 온라인 행사로 진행했다.

올해로 17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GYEONGBUK APPLE" SBACK(경북사과가 돌아왔다)라는 주제로 대구 시민을 찾아 경북도와 사과주산지시군 협의회(15개 시군)가 주최하고 대구경북농업협동조합이 주관했다.

첫날인 25일 오후 3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27일까지 3일간 행사가 진행됐다.

현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지역 15개 사과주산지 시군에서 생산한 사과를 직접 맛보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할인판매행사(6천원/2.5kg)를 실시했다.

행사가간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다양한 품종의 사과와 메시지를 담은 문자사과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경북사과 명품관'을 운영했다.

또 사과 닥트 게임, SNS 경북사과 먹자, 페이스 페인팅,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체험·부대행사를 마련해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에게 즐길거리도 제공했다.

이울러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경북 고향장터 사이소(www.cyso.co.kr) 및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온라인 판매(1만원/3kg)도 진행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로 3년 만에 사과 홍보행사가 소비자들을 직접 찾아가겠다"면서 "이번 행사가 농민들과 소비자들이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의 사과 생산현황은 2만 955ha, 30만9000톤으로 전국 생산량(51만6000톤)의 60%를 점유할 정도로 전국 최대의 사과 주산지이다.

/정대휘 기자

# 경북도, 싱가포르에 문화한류 불어넣어

## 경북관광 홍보설명회, 여행자협회와 협약체결 호텔 총지배인과 간담회 및 관광시설 벤치마킹



이달의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지난 20일 싱가포르에서 수출협력협약체결, 경북관광홍보설명회, 싱가포르여행자협회의 상호협력체결, 11개 그룹 호텔총지배인과의 간담회, 현지 호텔 및 관광시설 벤치마킹 등 다양한 일정을 가졌다.

먼저 이부지사 일행은 세계한인무역회 싱가포르지회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협력(MOU) 협약을 체결하고 양기간은 경제, 문화, 관광, 체육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 김종윤 싱가포르지회장은 "경북도와의 다양한 경제교류를 통해 싱가포르시장에 경북을 통하여 새로운 경제한류의 봄을 일으키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지난 21일에는 마리나베이 호텔에서 '2022 경북관광홍보행사'를 열고 현지 아웃바운드 여행사 대표 및 관계자 50여명을 초청해 경북 우수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동영상 시청, 프리젠테이션 행사를 가졌다.

이날 참가자들로부터 매우 감동적인 인상을 주었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이날 관광설명회에서는 경북 대표 관광도시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주유네스코문화유산, 경주세계역사포공원, 경주월드, 보문단지, 황리단

길, 포항스페이스워크, 영일대 해변, 호미곶, 청하시장, 사방기념공원, 구룡포, 안동(하회마을, 병산서원, 도산서원, 만휴정, 월령교), 문경(문경새재, 문경새재오븐세트장, 오미나라, 황공랜드, 질라인, 레일바이크)를 중심으로 유네스코지정 문화유산 관광지와 지역별 관광지를 함께 소개했다.

이 행사에서 스티븐 러(Steven Ler) 싱가포르여행자협회장과 교류활성화,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유치 등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이달의 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지역간 새로운 관광교류 활성화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11개 그룹의 호텔총지배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양 지역간의 관광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상호협력력을 위한 의견도 나왔다.

향후 아시아태평양회의의 경우유치를 위한 호텔 및 관광시설을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달의 경제부지사는 "동남아에 불고 있는 한류로 한국제품에 대한 호응도가 높고 K-드라마, K-Foods, K-Pops 등 다양한 한류상품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적극 발굴해 경북을 통하여 동남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자원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북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도 ↔ 도의회 ↔ 농협중앙회경북지역본부 ↔ 경북농업인단체협의회



경북도는 지난 21일 도청 회의실에서 경북도의회,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경북농업인단체협의회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금동명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장, 한용호 경북농업인단체협의회 상임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4개 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 내용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참여분위기 조성고 기부제도 홍보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행·재정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또 ▷담배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유통개발과 기부편의 제고 ▷지역에서 생산·채취·제조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등 지역특산물 발굴·공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부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협력도 수반키로 했다.

한편 경북도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 시군 담당팀장 교육 및 전문가 특강, 시군 담당자 합동 토론회, 벤치마킹,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TF팀 구성, 시군 과장회의, 조례제정, 고향사랑기부금운용심의·담배품선정위원회 구성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에 힘이 되고 기부자에게는 보람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며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지방재정 확충의 미중물 역할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조상님 땅 찾기' 온라인 가능

경북도는 기존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지난 2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정부24(https://www.gov.kr) 및 국가공간정보포털(http://www.nsd.gov.kr) 누리집의 조상 땅 찾기 배너로 접속해 행정안전부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에 동의하면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보된다.

다만 인터넷 신청으로 조회 가능한 대상은 지난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하며 그 외의 경우는 가까운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 경북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실시

경상북도는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집중 영치활동을 펼친다.

지역 전역을 3개 권역별(동부권·서남부권·북부권)로 나누고, 시군과 협업하여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이며,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도내 전역 아파트, 주차장,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균형, 창의, 희망, 힘이 되는  
울릉군의의회



# 경북도, '제1회 독도사랑배 전국승마대회' 개최

독도 사랑과 승마 대중화 · 지역경제 활성화 이 외에도 거북이달린다 등 이벤트 펼쳐



경북도는 상주시와 함께 '제1회 독도 사랑배 전국승마대회'를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상주국제승마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독도사랑 의미를 부여하고 승마인구 저변확대와 대중화를 위해 마련됐다.

정식 승마 종목인 장애물·마장미술 이외에도 초보자들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권승(승마 대회 출전 기초과정), 허들(장애물 입문자용), 거북이달린다(속보 경기), 돌이서 한마음(이여달리기) 등 1000여 경기에 선수 300여명(마필 280여 필), 관계자 400명이상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린다.

또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민족의 섬 독도에 대해 자긍심을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독도플래시몹 행사도 펼쳐진다.

이를 통해 참여한 모든 선수들이 독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되새기는 계기도 마련한다.

아울러 지난 6월 '2022년 제1회 경북' 종료후 이어지는 이번 대회로 전국 승마인들의 관심이 경북으로 쏠릴 것으로 보

인다.

한편 도는 국내승마 경기 부분 증가, 국내 최고의 경기장 보유, 국내 최초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승마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전국 최고 말 산업 선두주자로 나서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영천경마공원(22년9월 착공, 26년3월 준공) 조성에 발맞춰 각종 전국 승마대회 개최해 지역이 보유한 전통문화·관광·레저 생활 등 여가문화산업의 일련지로 우뚝 서겠다는 구상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도가 주최하는 전국 승마대회를 통해 전 국민이 즐기는 여가 산업으로의 확장성을 넓혀 전통과 규모를 자랑하는 국내 최고의 대회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면서 "여가문화산업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말산업이말로 농업 대전환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조례로 지정해 독도 문화예술의 선, 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대휘 기자

## 경주화랑고

### 울릉도서 탄소중립 비치코밍 활동 전개



경북 경주화랑고는 지난 2일, 울릉도 내수전 몽돌해변 일원에서 탄소중립 비치코밍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는 2022년 2학기 교외 봉사 체험활동 일환으로 1학년 학생 21명과 교사 6명이 참여해 '생명사랑, 생태사랑, 국토사랑-울릉으로 내딛다'를 주제로 울릉도내수전 몽돌해변 일원에서 실시했다.

행사는 해양 폐기물,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 담배꽂초 등 바닷가 쓰레기를 회수하는 등 탄소중립 비치코밍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몽돌해변은 작은 돌로 형성된 해변으로 일반적인 모래사장과는 달리 작은 돌 사이에 박혀있는 담배꽂초나, 비닐 등의 쓰레기 수거에 어려움이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경주화랑고는 경북도교육청 지정 탄소중립 모델학교와 탄소중립 녹색학교 교육부 지정 탄소중립 시범학교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또한 해양 오염과 해양 정화 활동에 관

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학교 인근 동해안 문무대왕 수증능 일원에서 지속적인 비치코밍 활동을 전개해 문화재 보호와 해양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임수정 경주화랑고 선생은 "육지 오염과 다르게 해양 오염은 쉽게 눈에 띄지도 않으며 오랜 시간 서서히 진행되고, 오염물질의 잔류성이 강해 해양 생태계에 고농도로 축적되고 최종 우리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학생들이 해양 오염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도 알려주며 지속적인 정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연(경주화랑고 1년) 학생은 "깨끗한 내 집이라면 쓰레기를 버릴까, 이렇게 깨끗한 바닷가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 놀랍고 안타깝다"며 "환경정화 활동도 중요하지만 버리지 않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쓰레기 버리지 않기 홍보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 LG, 꾸준한 지역사랑 실천

### LG경북협의회, 김장김치 1만2600kg 구미시에 전달



LG경북협의회(회장 정철동)는 지난 23일, 구미시청을 방문해 'LG사랑나눔

김장김치'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구미지역 취약계층 이웃

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했다.

구미 LG자매사(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팜한농)는 지역사랑의 뜻을 모아 지역 시설과 결연 세대에 김장김치 6300여포기를 전달한다.

LG경북협의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임직원들과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오프라인 김장 행사는 열지 않았으나,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의 김치를 대량 구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 플라스틱 김치통을 최소화하고 종이 박스에 김치를 담은 등 '플라스틱ZERO(제로웨이스트)'에 앞장서고 있다.

LG경북협의회 관계자는 "LG의 사회공헌은 이웃을 사랑하고 나눔을 실천하

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며 "김장김치로 지역의 이웃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며,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올해도 잊지 않고 한결 같은 나눔을 실천해주신 LG경북협의회와 LG자매사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대휘 기자

## 성인문해교육 한글·공예교실 증강

울릉군은 성인문해교육 찾아가는 한글·공예교실 수업을 성공적으로 마쳐 지역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22일 열린 종강식에는 어르신 28분이 참석했고, 최순자 어르신은 대표로 수료증을 받았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저학력 및 비문해 어르신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울

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 성인문해교육은 9월 1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진행됐으며, 남양 경로당과 천부 경로당에서 매주 한글교실 2회와 공예교실 1회가 진행됐다. 교육은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울릉군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가 맡았다.



# 경북도, 독도 메타버스플랫폼 만든다

### 경북대서 경북도 독도위원회 하반기 세미나 "분쟁 지역이 아닌 평화의 섬으로 만들겠다"

경상북도는 지난 25일 오후 경북대 북지관에서 '2022년 경북독도위원회 하반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평화의 섬 독도, 미래 세대를 위한 플랫폼 만들기」라는 주제로 독도 관련기관의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 메타버스 공간에 독도를 구현하는 독도메타버스 개발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짚어보기도 했다.

세미나 발표에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정영미 독도연구소장이 「독도 관련기관의 현황과 협력방안, 대구사이버대학교 박승희 산학협력단 과장이 「독도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현황 및 발전방향성」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독도위원회에서 각 발표의 토론을 맡아 진행했다.

정영미 독도연구소장은 "독도는 울릉도 인식과 지식을 구성하는 하나의 자연적 요소이며, 독도는 울릉도의 지형적 특징의 하나이다"라면서 "독도는 울릉도와 분리불가분의 존재로 하나의 세트의 섬으로 현재의 독도 연구·교육·홍보 활동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승희 대구사이버대학교 과장은 "글로벌 관광자원인 독도홍보를 위한 수단 중 현지방문 이외에 가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경북만이 보유하고 있는 IP를 활용한 차별화된 메타버스 아이템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메타버스 사업의 한계점, 발전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김성학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독도와 동해를 지키고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해 오고 있는 경북도는 분쟁지역 이미지가 아닌 도민이 누리고, 즐기고, 생활하는 '평화의 섬' 독도를 만들겠다"라며

"가상공간에 독도를 구현해 미래세대와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가깝고 친근한 독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에 출범한 경북 독도위원회는 올해 8년째 맞고 있으며 독도영토 주권 확립을 위해 독도에 대한 정책과 국제사회 대응을 위해 역사, 국제법, 국제정치, 지리, 해양 등 독도관련 분야 14명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김경태 기자

# (사)울릉도아리랑 보존회 '우산문화제' 공연

### 우산문화제 "울릉군 역사와 전통 계승 울릉도 개척정신, 주민화합 도모 지역 전통 고유문화 행사"

경북 울릉군은 지난 19일부터 24일 까지 한마음회관 등에서 제16회 우산문화제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울릉군 주관, 울릉문화원과 울릉군 문화예술단체 연합회 주최로 개최됐다.

제15회까지는 아리랑무대에서 연예인 초청공연, 전통 민속체험, 향토음식 시연시식회 등으로 진행됐으나, 올해부터는 지역 공연단체들의 실내 전시, 공연 등으로 새롭게 구성해 열렸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 예술인들이 직접 행사를 구성해 참여하는 주도적 공연전시문화의 시작점이라는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편 울릉도아리랑보존회는 지난 19일, 러일전쟁 유적지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석포전망대에서 열린 '망루의 밤 숲속 음악회'와 지난 24일, 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울릉도 주민들의 삶과 애환을 담고있는 울릉



도아리랑을 공연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우산문화제는 우산국으로부터 시작된 울릉군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울릉도의 개척정신을 기리는 동시에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지역 전통 고유문화 행사다.

최수영 울릉문화원장은 "우산문화

제를 통해 지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겠다"며 "우산국부터 시작되는 울릉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명맥을 새롭게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학 기자

# 동해바다... "참고래 42년 만에 발견" 가을철 동해바다에 대형고래 나타나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이하 수과원은 최근,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35일 동안 가을철 동해에 서식

하는 고래를 찾기 위한 목시조사를 수행해 참고래를 포함한 고래류 6종, 24군 1639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경학 기자



포항해경, 포항-울릉 여객선 '응급환자 이송'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지난 24일 새벽 1시38분쯤 영덕군 축산 남동방 약 37km(약 20해리) 해상에서 여객선 A호(1만1000톤급)에 승선 중이던 B씨(40대)가 발작증세를 호소한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이동시켜 A호를 안전관리를 했으며 이후 영일만파출소 경찰관 2명이 A호에 승선해 B씨를 안전하게 연안구조정으로 이송시킨 후 포항 영일만 용한항으로 입항해 119에 안전하게 인계해 병원으로 이송했다./사진=포항해경 제공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15년 표류 흑산도공항 속도전

### 정부, 다도해 공원내 공항부지 개발제한 해제 추진 내달 환경부 규제심의 통과면 내년 하반기 착공 가능



15년째 담보 상태에 놓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안의 '흑산도 소형 공항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신안군은 2019년부터 공항 부지를 공원에서 해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는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가 최근 이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말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공원위) 심의에서 이 안이 통과되면 이후 공항 사업은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전남도와 신안군 등에 따르면, 흑산도 소형 공항은 흑산도의 경제 중심지 예리항에서 북동쪽으로 1.6km 떨어진 대봉산(해발 125m) 68만3000㎡에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1833억 원을 투입한다. 활주로는 길이 1200m,

폭 30m 규모다. 프로펠러가 달린 50인승 소형 항공기(ATR42 기종)가 취항한다. 흑산도 소형 공항이 들어서면 김포공항에서 흑산도까지 육로와 뱃길을 통해 8시간 이상 걸리던 이동 시간은 1시간으로 줄어든다.

그동안 흑산도 소형 공항은 15년째 환경부 공원위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항 부지가 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것과 철새 보호 문제 등이 이유였다.

하지만 최근 진전이 되고 있다. 신안군에 따르면 흑산도 공항 건설을 위해 환경부·해양수산부는 공항 부지 68만3000㎡를 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하고, 그 대신 흑산도에서 동쪽으로 45km 떨어진 신안 비금도 명사십리해변 일

대 550만㎡를 해상국립공원으로 편입하기로 신안군과 합의했다. 비금 국립공원 부지는 흑산도 공항 부지보다 8배가 넓다.

이 때문에 내달 말 열릴 예정인 공원위 심의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크다. 공원위는 25명의 위원이 흑산 공항 부지 공원 해제 등을 놓고 의사를 결정한다.

신안군 흑산공항지원단은 "흑산도 활주로 예정지에 펼쳐진 곱슬 군락지가 고사하는 바람에 개발 제약 조건은 사실상 사라졌다"며 "더군다나 과거와 달리 위원들이 흑산 공항 건설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박우량 군수는 "섬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권 마련, 생명권 확보,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반드시 소형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며 "서해 먼바다에서 가장 큰 흑산도는 서남권 국토 보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섬"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공원 해제와 별도로 철새 보호를 위해 흑산도 6군데에 철새 대채 서식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은윤수 기자

## 가거도 · 흥도등대 등...포항등대박물관서 이색 사진전

한국항로표지기술원 국립등대박물관은 국영수 작가와 함께 '역사가 흐르는 등대와 우리 영해'란 주제로 사진전을 연다고 최근 밝혔다.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에 있는 등대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사진전에서는 우리나라 영해 시작점을 알리기 위해 설치된 영해표지 23곳 중 국민이 찾아가기 힘든 13곳의 사진이 전시되고 있다.

제주도의 재래식 등대인 '도대불'과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늦게 지는 '가거도등대',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인 '흥도등대', 거센 파도로 유명한 맹골군도 '죽도등대' 등 이야기가 있는 아름다운 등대 40곳 사진도 선보이고 있다.

오병택 등대박물관장은 "세계 최대 규



모의 등대 전문 박물관에서 열리는 특별 사진전에 많은 분이 찾아와 바다를 밝혀 고 말했다. 마음으로 느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지킴이 영해표지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은윤수 기자

## 연평도 포격전 12주기 추모행사 거행



11월23일 연평도 포격전 12주기를 맞아 국립대전현충원과 연평도 현지 평화공원에서 각각 추모행사가 거행됐다.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추모행사에는 김진성 응진군 부군수가 참석해 나라를 지키다 희생한故 서정우 하사와故 문광욱 일병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북한의 포격 도발에도 굴하지 않고 즉각 대응하여 승리한 해병대원들의 용기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또한 해병대9518부대 주관으로 연평도 현지에서 거행된 추모행사에는 연평부대장과 연평면 지역단체장 및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희생자의 숭고한 넋을 위로했다.

김태진 행정복지국장은 '연평도 포격전 12주기를 맞아 국토수호와 서해 평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서해5도 주민분들과 해병대장병들에게 감사의 표하며,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2010년 연평도 포격전으로 깊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연평도 주민분들 위해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완도군, 완도 김 일본 수출 업무협약 체결

완도군은 지난 22일 완도군청에서 호남산업과 일본 킨바라 노리텐 간 완도 김의 원활한 일본 수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호남산업 김형준 대표, 일본 킨바라 노리텐 대표 후지사와 요시히사 등 6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청정바다 완도에서 생산되는 김이 일본으로 원활히 수출될 수 있도록 하고, 킨바라 노리텐은 완도 김 판로 확대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흑산도 해역에서 규모 3.3 지진

지난 20일 새벽 1시1분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부근 해역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의 진앙은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 서 남남서쪽으로 81km 떨어진 남해해역이며 진원의 깊이는 20km로 분석됐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에 대해 "지진피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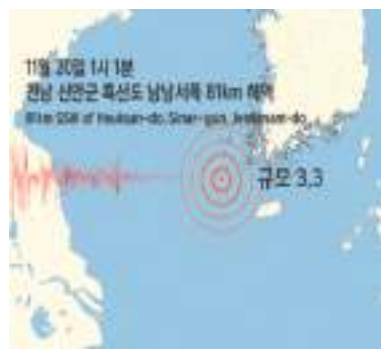
이번 지진으로 인해 전남 지역에 진도 2의 흔들림이 전달됐으며 진도 2의 진동

은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느낄 수 있다.

규모 3.3 지진이 발생한 지역 인근에선 6분 뒤 규모 2.0 미만의 미소지진도 발생했다.

기상청은 새벽 1시7분 흑산도 남남서쪽으로 79km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1.7 지진이 발생했고 진원의 깊이는 20km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까지 올해 한반도에서는 구



모 2.0 이상 지진이 70차례 발생했고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6차례 일어났다.

**울릉군 귀농·귀촌연합회 회원모집**

울릉군 귀농·귀촌연합회는 성공적인 귀촌 정착을 위해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와의 용화를 통해 살기 좋은 행복한 미래건설을 위해 구성되고 있는 모임입니다.

취미는 농어촌풍경 그리기

**행복한 귀농생활**

수합회조건 : 연영, 이주, 기간, 직업 무관(단, 주소지 울릉군 가능)  
☎문의전화 : 791-3399 / 010-9711-6789

(사)경상북도 귀농·귀촌연합 울릉군연합회



**조문공간 ENG**  
 관내민간, 종교, 사설, 사당, 묘지, 화장장

**정동희**  
 경북 울릉군 시면 남영길 25-171281  
 Tel. 02-1644-1334  
 Fax. 02-6925-3662  
 Mobile. 010-5252-5555  
 Email. bizhow@nridu.com

# 울릉신문

**CALL rent car**

**조강제**  
 010-9905-7299

(주)울릉렌터카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동북면 8-11001  
 TEL. 02841131-0000  
 FAX. 02841131-9999

실시간 [www.울릉신문.com](http://www.울릉신문.com) 검색

독도를 품고 있는 국민의 신문

2022년 11월25일 ~ 12월10일

## ‘2022년 제16회 우산문화제’ 성료

제16회 우산문화제가 지난 19일 숲속 음악회(석포 전망대)를 시작으로 11월 24일 관내 예술단체의 공연(한마음화관)까지 마무리됐다.

우산문화제는 우산국으로부터 시작된 울릉군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울릉도의 개척정신을 기리는 동시에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울릉군 전통 고유문화 행사이다.

울릉군이 주관하고 울릉문화원과 울릉군 문화예술단체 연합회가 주최하는 제16회 우산문화제는 지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중단되었다가 4년 만에 개최됐

다. 지난 2018년 제15회까지는 야외무대에서 연예인초청공연, 전통 민속체험, 향토음식 시연 및 시식회로 진행되었던 행사가 올해부터는 관내공연단체의 실내 전시와 공연 등으로 새롭게 구성됐다. 이는 관내 예술인들이 직접 행사를 구성하고 참여하는 주도적인 공연전시문화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향토음식 시식회가 아닌 도시락을 배부했다.

지난 19일 해설이 있는 망루의 밤 숲속 음악회가 석포전망대에서 사진신청을

한 참가자들에 한해 안전하게 진행됐다. 러일전쟁유적지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장소에서 유적지 해설, 시낭송 그리고 음악회(오카리나, 성악, 합창단 등)와 전망대에서 어화를 조망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끝이 났다.

11월22일부터 24일까지 전시회가 상시로 열려 그림·붓글씨·시화·캔들공예 다양한 예술작품들을 선보였으며, 24일에는 색소폰 외 15개 관내 예술공연단체들이 이제껏 갖고 뒀던 실력을 공연했다. 마지막으로, 다식 체험 그리고 고유음식 도시락(강냉이 범벅, 영귀국

등을 배부하는 것으로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울릉문화예술단체는 올해 9월 29일 28개의 관내 문화예술단체(개인포함)로 구성되어 설립됐다. 울릉군 내 각종 예술분야의 문화예술인이 소통하는 장구를 만들어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협력하고 울릉군의 특색있는 예술문화의 창달을 목표로 한다. 특히, 울릉문화원과 함께 이번 제16회 우산문화제를 공동 주최하고 관내 예술인들을 결집하여 예술경연대회 등 행사 프로그램 전반을 구성하고 직접 참여함으로써 관내 예술문화 발전



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우산문화제를 통해 지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우산국부터 시

작되는 울릉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우산문화제의 명맥을 새롭게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학 기자

## “울릉도 특산작물 활용 가공품 품평회” 개최

오색 떡, 맷돌호박 빵, 마가목발효 주 등 상품화 추진



경북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3일, 울릉군 현지에서 농산물유통팀이 연구 개발한 ‘울릉도 특산작물 활용 가공품에 대한 품평회’를 개최했다.

이번 품평회는 신용습 경북도농업기술원장, 남한권 울릉군수, 울릉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품평회는 울릉공항 개항 등과 함께 다

가을 100만 관광객 시대를 대비한 가공 시제품 3종(오색떡, 호박빵, 마가목 발효주)에 대한 품평회와 함께 향후 제품화 방안을 모색했다.

농업기술원은 올해 울릉농업기술센터와 현장실용공동연구과제를 통해 지역 대표 특산물의 소재화 기술개발 및 가공 제품화의 적용 연구를 추진했다.

울릉도 섬쭈부쟁이(녹색), 맷돌호박(황색), 마가목(적색), 오징어먹물(흑색)의 고유 색상과 향기를 유지하는 기술을 적용한 ‘오색갈라떡’, 맷돌호박의 형태를 살린 빵 및 레시피를 적용한 ‘맷돌호박빵’, 마가목 열매 추출물과 호박조청 발효기술을 적용한 ‘마가목 발효주’를 개발했다.

품평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은

향후 울릉도 특산작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과 지역 가공업체를 통한 제품화 단계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농촌진흥청, 산업체, 대학, 유통 마케팅업체 연계를 통해 울릉지역 섬쭈부쟁이를 이용한 고령자용 식품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개발한 섬쭈부쟁이의 색상 및 기능 성분을 안정화 기술과 산업체 KMF의 효소분말기술을 연계한 소화능력 개선, 섬쭈부쟁이 타블렛은 제품화를 앞두고 있다.

울릉도에는 산채류, 맷돌호박, 마가목을 비롯한 다양한 특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가공품을 단순 가공을 통한 제품이거나, 최근 소비 트렌드가 반영하지 못해 차별화된 지역 특화 가공품 생산이 요구되고 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경북농업기술원에서 울릉도 특산자원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에 심혈을 다해 연구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력사업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울릉도 대표 상품들이 많이 개발되어 농

가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용습 경북도농업기술원장은 “울릉도 고유 특산작물을 활용한 가공 기술을 지역 가공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관광상품 개발에 적용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

## 대통령밴드 팀포유 색소폰팀 합동 공연

울릉지역 문화 활력 촉진... '싱글.빙글 울릉'



경북 울릉군 대통령 밴드, 팀포유 색소폰팀은 지난 18일, 오후6시 울릉천국아트센터3층 카페에서 합동 콘서트 및 울릉팻캐스트 영상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2년 '싱글빙글 울릉' 지역문화 활력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을 지원받은 3팀의 성과발표회를 겸한 행사다.

행사는 대통령 밴드의 '연안부두' 공연을 시작으로 '진포배기' 등 10곡의 인기

곡들을 라이브로 연주했으며, 팀포유 색소폰 팀은 '고맙소', '라라라' 등 인기곡들을 연주했다.

특히 2팀 멤버 모두가 무대에 올라 '편이' 등 빠른 템포의 곡들을 협연해 관객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또한 울릉팻캐스트 팀은 '디아스포라, 2022년 그리고 1882년, 울릉도 140년의 이야기'를 20여분 상영한 후, 멤버들이 인사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관람 주민들로부터 '울릉도 1호 밴드'라는 응원 애칭과 함께 찬사를 받았으며, 앞으로 울릉지역 문화 활성화에 촉매 역할이 됐다는 호평을 받았다.

공연 관계자는 “울릉도 주민으로 구성된 팀이 1시간40여분간 공연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번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행사 활동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초대형 카페리로 열어가는  
 세계적편안한 울릉 배길

**울릉크루즈**

포항↔울릉 매일운항

포항 영일만항 출발 23:50  
 울릉 사동항 출발 12:30

경북도민 최대 30%할인  
 (저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울릉크루즈(주) 전국대표번호 1533-3370 홈페이지 [www.ulcruise.co.kr](http://www.ulcruise.co.kr)